

碩 士 學 位 論 文

指導教授 鄭 後 洙

<손 없는 색시>譚 연구

A Study on the Folktale of Bride without Hands

2 0 0 1 年 8 月 日

漢城大學校 大學院

國 語 國 文 學 科

國 文 學 專 攻

康 銀 京

碩 士 學 位 論 文

指導教授 鄭 後 洙

<손 없는 색시> 譚 연구

A Study on the Folktale of Bride without Hands

위 論文을 古典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 0 0 1 年 8 月 日

漢城大學校 大學院

國 語 國 文 學 科

國 文 學 專 攻

康 銀 京

康銀京의 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定함

2001年 8月 日

審査 委員長

印

審査 委員

印

審査 委員

印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사 검토 및 연구 목적	1
2. 연구 방향	5
II. <손 없는 색시>譚의 자료 존재 양상.....	7
III. <손 없는 색시>譚의 구조와 의미.....	16
1. 통과제의담으로서의 구조와 의미.....	16
2. <손 없는 색시>譚의 사회사적 의미.....	32
1) 가부장 권위에 대한 도전.....	32
2) 계모 악녀 형상의 실체.....	35
IV. 타 유형 및 타국 자료와의 비교.....	44
1. <손 없는 색시>譚과 타 유형의 비교.....	44
2. <손 없는 색시>譚과 독일민담 “손 없는 처녀”의 비교.....	52
V. <손 없는 색시>譚의 문학사적 위상.....	58
VI. 결론.....	60
참고문헌.....	65
ABSTRACT	68

I. 서 론

1. 연구사 검토 및 연구 목적

<손 없는 색시>¹⁾는 계모와 전처딸 사이의 갈등이라는 소재를 권선징악적 선악대결 구조 속에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손 없는 색시>는 '親母의 죽음으로 계모를 맞게된 전처소생의 딸은 계모의 낙태 모함에 의해 손이 잘려진 채 쫓겨나 정처없이 헤매다가 배를 따먹으려다가 총각을 만나 혼인하게 되고 남편의 출타시 아이를 낳았다. 그러나 다시 계모의 음모(또는 시어머니의 박대)로 인하여 시가에서마저 쫓겨나게 되고 샘물에서 물을 마시려다가 손이 재생되며 남편과의 재회 후 계모를 응징하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이다.

<손 없는 색시> 유형은 기록과 구전을 통하여 세계 각처에서 매우 폭 넓게 전승되어 왔다. 11세기의 유명한 <千日夜話>에도 이 유형과 매우 근접되고 있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 이후 17세기에 이르기까지 서구에서는 20여종에 달하여 확실한 문헌 자료가 나타났다. 볼테-폴리브카(BP)의 <그림 설화 주석> 및 톰슨의 <설화의 제유형> 등을 참고하여 이 유형의 분포지를 살펴보면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북미, 라틴-아메리카에 걸쳐 분포되어 있어 그 광포성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구의 경우 영국의 「잔인한 계모」, 독일 그림형제의 <아동과 가정을 위한 설화> 제 31화 「손 없는 색시」(Das Mädchen ohne Hände)가 발견되며, 일본의 경우에는 이 유형(AT 706)이 보통 '테나시무스메'(手無し娘)로 불리고 있는데, 세끼·케이고 關敬吾의 <日本昔話大成>에 의하면

1) 한국에서 채취된 동류 설화는 모티프나 주제문을 방불케 하는 다소 긴 제목들이나 조희웅이 명명한 “손 없는 색시”가 설화적이며 범세계적 보편성과 국제적 감각을 같이 하는 간결한 제목이라는 주종연의 견해에 따라 본고에서도 “손 없는 색시”로 통칭기로 한다.

1976년까지 총 37편이 채록되었다고 한다.²⁾

조희웅은 <손 없는 색시>를 缺失되었던 손이 재생 내지 回附된다는 주술성을 지니는 점에서 신이담으로, 주인공의 선악에 따른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應報譚으로 분류하였다. 아아르네-톰슨의 「설화의 유형」에서는 이 이야기(AT 706)를 포함한 '쫓겨난 아내 혹은 처녀'계의 이야기들(AT 705~712)을 모두 일반담 가운데 주술담으로 포괄시켰고, 톰슨의 「설화학」에서는 AT 706을 '복합담-좋은 가족·악한 가족-쫓겨난 아내 혹은 처녀'하에서 언급하였다.³⁾ 주종연은 가정담은 부재의 전제로부터 시작되며, 이 부재의 경우 대체로 양친 또는 두 분·중의 한 분의 사망이란 결손가정의 전제와, 가족 중 하나의 출타라는 또 다른 불완전한 상황으로 이야기의 발단은 유도된다고 하면서 <손 없는 색시>를 가정담에 속하는 이야기로 분류하였다.⁴⁾ 박태상은 가정담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가족간의 갈등 및 대립양상과 재산상속, 애정다툼 등 생활상의 문제점 등을 다룬 이야기를 말하며 계모담은 전처가 죽은 후에 들어온 계모가 전처가 남기고 간 자식들을 학대하는 유형의 이야기로 보았다.⁵⁾ 이렇게 볼 때 <손 없는 색시>는 친모의 죽음과 계모의 영입으로 인하여 야기된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계모형 이야기'라 할 수 있으며, 가족간의 생활상의 문제점을 다룬 이야기라는 점에서 넓은 의미에서 '가정담'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손 없는 색시>에 대한 논의는 조희웅에 의해서 처음 시작되었다. 그는 <손 없는 색시>의 유형적 특징과 분포, 역사를 살피고, 歐美, 일본의 자료를

2) 조희웅, 「「손 없는 색시」(AT 706)」, 『한국설화의 유형』, 일조각, 1996, pp.287-290

3) 조희웅, 「「손 없는 색시」(AT 706)」, 앞의 글, p.282.

4) 주종연, 「한국의 전래민담과 독일 Grimm童話와의 비교연구 II;<콩쥐팍쥐>와 <Aschenputtel>」, 『국민대어문학논총 12』, 1993, pp.19-20.

5) 박태상, 「조선조 가정소설 연구-계모형·쟁충형 소설을 중심으로-」, 연세대 박사학위 논문, 1988, p.1.

소개하였다. 그와 함께 한국 자료 4편의 공통된 특징을 일곱 가지로 정리하고 <손 없는 색시> 유형의 문학적 계보를 논하였다.⁶⁾ 그의 연구는 외적인 표현 형태를 중심으로 분석이 되어 있으며, 본격적 연구라기보다는 개괄적 소개 정도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손 없는 색시>에 대한 연구의 시야를 크게 확대시켜 주었고, <손 없는 색시>의 연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해결해야 할 과제를 포괄적으로 제시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주종연은 <손 없는 색시>를 결여를 전제로 한 가정담으로 보고, 4편의 공통적인 의미를 열한가지로 추출해 내었다. 그는 <손 없는 색시>를 결여와 가해에서 시작하여 결혼을 거쳐 다시 재결합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이라 요약하는 한편, 독일 민담 “손 없는 처녀(Das Mädchen ohne Hände)”와 <손 없는 색시>를 비교하여 그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 두 설화가 부분적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같은 모티프를 가진 하나의 유형의 설화로 볼 수 있음을 밝혀 내었다.⁷⁾ 그의 논의는 <손 없는 색시>의 이면에 담긴 가치관이나 사회적 함의를 연구한 것은 아니나, <손 없는 색시>의 특성을 밝혀 주었으며, 외국 유사설화와 비교를 통해 <손 없는 색시>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일정하게 해명하여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신연우는 <손 없는 색시>를 분석심리학적으로 접근하여 <손 없는 색시>의 서사구조와 모티프가 가진 의미를 분석하였다. 그는 <손 없는 색시>를 한 여성이 부모와 사회에 의해 억압된 성 의식 때문에 삶의 방향성을 잃었다가 재생의 의례를 거쳐 다시 온전하고 새로운 삶을 인식하게 되는 주제의 이야기라고 풀었다.⁸⁾ 그는 논의는 ‘계모설화’를 바라보던 기존의 시각에서 탈피하여

6) 조희웅, ‘「손 없는 색시」(AT 706)’, 앞의 글.

7) 주종연, ‘韓國의 傳來民譚과 독일 Grimm童話와의 比較研究 I ; “손 없는 색시”(Das Madchen ohne hande)’, 『어문학논총 11』, 국민대학교, 1992.

8) 신연우, ‘<손 없는 색시>설화와 여성 성 의식의 성장’, 한국고전여성문학회 제 5차 학술대회, 2001. 4.

새로운 의미들을 도출해내었다는 점에서 그 성과가 크다 하겠다.

이 외에 '繼母說話'의 연구의 한 부분으로 <손 없는 색시>에 대한 단편적인 언급들이 있다. 전용신은 '계모설화'를 연구하는 자리에서 <손 없는 색시>에 대하여 소략하게 언급하였다. 그는 <손 없는 색시>를 장화홍련형 설화와 비교하면서 <손 없는 색시>가 장화홍련형의 설화와 다른 점으로, 죽이는 대신에 손을 끊어 앞으로 정상적인 삶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자신을 해친 계모에 대한 복수를 초월적인 힘에 의존하는 대신에 고생하면서 어린 아기도 키우고 남편도 가르치고 하여 계모에 대한 징벌이 인간적인 선에서 있을 수 있는 시나리오에 근접되어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손 없는 색시>는 인간적인 노력이 가장 강조되면서 반전되는 구조이므로 다소 복잡한 면도 있으며, 끝 부분에 손목도 건지고 신랑도 만나는 행운이 연달아 일어나는 구조상의 특이한 점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⁹⁾

신상운은 계모가 전실자식의 팔을 자르는 설화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설화로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계모가 의붓자식을 학대할 때 보편화된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 이처럼 신체 부위 중 팔을 자르는 이야기가 보편화된 것은 인간 활동에 가장 필수적인 신체 부위 중에 하나가 팔이기 때문으로 보았다. 따라서 계모가 전실자식의 팔을 제거한다는 것은 계모가 전실자식의 활동을 무력화시켜 자신의 목적을 쉽게 달성하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런 잔인한 계모의 모습은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어떤 악행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모습으로서 계모의 악한 모습을 더욱 부각시켜 주는 효과로 해석하였다.¹⁰⁾

이상이 <손 없는 색시>에 대한 연구의 전부다. '계모설화'의 유형들은 현재 많은 각편이 전승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모설화' 전반에 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연구와 그 특징을 밝혀 놓은 논문들은 몇 편 있지만

9) 전용신, '한국계모설화연구', 경성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10) 신상운, '계모설화연구', 전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pp.43-44.

‘계모설화’에 속하는 각 유형에 대한 부분적 연구는 상당히 미진한 상태이다. 따라서 ‘계모설화’에 속하는 유형들의 전승양상이나 각 편들의 변이들은 별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 있어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요청되었다. 그런데 ‘계모설화’ 가운데 <손 없는 색시> 유형은 다른 ‘계모설화’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의 절단’과 ‘손의 재생’이라는 독특한 모티프를 가지고 있으며, 계모와 전처소생간의 갈등이 한 번의 축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의 축출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다른 계모설화에 비해 한층 더 복잡하며, 전처소생이 겪는 시련 또한 더 극대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손 없는 색시>를 연구하고자 한다. <손 없는 색시>는 비록 5편에 불과하지만 북부 평안도, 중부 경기지방, 남쪽의 영·호남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연구 현황은 불모지나 다름없다. <손 없는 색시>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조희웅, 주종연 외에는 없었다고 할 수 있으며, 최근에 <손 없는 색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접근을 시도한 신연우의 논의가 있었으나 그 역시 본격적인 논의로 나아간 것은 아니었다. 기존의 연구는 <손 없는 색시>의 이면에 담긴 가치관이나 사회적 함의 등이 자세히 살피지지 않았다. 이처럼 <손 없는 색시>의 연구는 아직 양적, 질적으로 상당히 미흡한 상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계모설화의 독특한 하나의 하위유형인 <손 없는 색시>를 새로이 검토할 필요를 느꼈다. <손 없는 색시>는 여성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자못 크다. 그리고 <손 없는 색시>는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는 세계광포설화이며, ‘계모설화’의 독특한 하나의 하위유형이라는 점에서 우리 민담의 세계성과 특수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 연구 방향

본고는 앞에 제시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에 중점을 두어 <손 없는 색시>를 연구하도록 하겠다.

첫째, 논의의 준비 과정으로서, 채록된 다섯 편의 서사 구조를 정리하고 이 서사구조를 중심으로 단락별 변이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손 없는 색시>의 자료 존재 양상을 고찰하도록 하겠다.

둘째, 이야기의 사건 전개 방향을 구조적 측면에서 살피고, 그 속에 구현된 의미체계를 분석하도록 하겠다. <손 없는 색시>는 여인이 여인으로서의 자기의 세계를 성취하는 과정의 실상을 이니시에이션 과정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완벽한 통과제의적 양식을 띤 설화¹¹⁾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접근하여 이 이야기에 투영된 설화적 상징의 의미를 통과의례와 관련시켜 그 의미를 파악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손 없는 색시>는 계모와 전처딸의 갈등 양상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계모와 전처딸의 갈등의 원인과 그 의미를 밝혀내기 위해 이들 여성의 갈등 구조 양상을 사회적 의미로 접근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전승자의 의식도 함께 고찰하도록 하겠다.

셋째, 계모와 전처딸의 갈등을 다루는 '계모설화' 안에서 <손 없는 색시>를 논의함으로써 '계모설화' 안에서의 <손 없는 색시>의 위치를 밝혀보도록 하겠다. 이것은 '계모설화'의 전반적인 의미도 다시금 조명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손 없는 색시>와 같은 유형이라 할 수 있는 독일민담 "손 없는 처녀" 비교를 통해 한국민담의 특수성과 세계성을 논하도록 하겠다. 이러한 논의들은 <손 없는 색시>의 문학사적 위상을 밝혀 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문제를 해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구조주의적 방법, 문학사회학적 방법, 신화적 방법을 혼용하여 총체적인 해석을 전개시키도록 하겠다.

11) 김종균, '콩쥐팍쥐전 연구-이중구조와 상징을 중심으로-', 우리어문학연구 (3), 한국외국어대 한국어교육과, 1991.

II. <손 없는 색시>譚의 자료 존재 양상

최운식은 '계모설화'를 '착한 계모 이야기'와 '악한 계모 이야기'로 나눈 다음, 이들을 다시 '착한 계모 이야기'는 1)개과천선한 계모형 2) 천성적으로 착한 계모형으로, '악한 계모 이야기'는 1)어린 아들을 버린 계모형 2)난제를 부과하는 계모형 3)아들의 간을 먹는 계모형 4)콩쥐팍쥐형 5)딸의 不貞을 꾸민 계모형 6)신방의 아들을 죽인 계모형 7)子婦의 不貞을 꾸민 계모형 8)새 사위를 죽이려는 계모형 9)신부를 바꿔치기한 계모형으로 나누어 그 전승양상을 살폈다.¹²⁾

전용신은 착한 계모설화에는 1) 천성적으로 착한 계모의 이야기와 2) 개과천선한 계모의 이야기가 있으며, 악한 계모의 이야기는 계모의 악행과 고난 극복 과정을 중심으로 (가) 난제를 부과하는 계모 (나) 전실 아들을 죽인 계모 (다) 딸의 부정을 꾸민 계모 (라) 신체적 危害를 하는 계모의 이야기가 있다고 보았다. 그는 <손 없는 색시>를 '악한계모이야기' 가운데 '신체적 危害를 하는 계모형'의 하위 범주로 설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료는 손 없는 색시(1-9), 계모에게 쫓겨난 손 없는 처녀(7-4), 이정승의 며느리(7-6), 전처딸 모해한 악독한 계모(7-13), 숯 굽는 총각과 결혼한 처녀(8-11) 등 5편이 있다고 보았다.¹³⁾

신상운은 '계모설화'의 유형을 크게 계모의 입장과 전실자식 입장으로 나누어, 계모의 입장에서는 '난제 부과', '학대', '모함', '가해', '살인' 5가지로, 전

12) '繼母說話'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최운식에 의하여 처음 시도되었고(최운식, 「계모설화연구」, 『한국의 민속』 제 3호, 경희대민속학연구소, 1986), 그 후 『한국설화연구』의 「계모설화의 전승양상 및 구조와 의미」에서 계모와 전실자식과의 관계를 다룬 이야기를 '계모설화'로 통칭하고 계모설화의 유형과 전승양상, 구조와 의미 등을 고찰하였다. 그러나 그의 논의에서는 <손 없는 색시> 대한 언급은 없다.

13) 전용신, 앞의 글.

실자식의 입장에서는 ‘재생’, ‘초월’, ‘수난극복’, ‘효도’ 4가지로 분류하였다. 그는 <손 없는 색시>를 계모의 입장의 하위유형으로는 ‘모함’과 ‘위해’ 유형에, 전실자식 입장의 하위유형으로는 ‘수난극복’ 유형에 포함시켜 그 특징을 살펴보고 있다.¹⁴⁾

위에서 본 것처럼 <손 없는 색시>는 ‘악한계모이야기’ 가운데 ‘신체적 危害를 하는 계모형’의 하위 범주로 설정되거나, 계모의 입장의 하위유형으로 ‘모함’과 ‘위해’ 유형에, 전실자식 입장의 하위유형으로 ‘수난극복’ 유형에 포함된다 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채록된 우리 나라의 <손 없는 색시>譚은 다음과 같다.

(표 1) 국내채록 <손 없는 색시> 자료

자료 번호	설 화 명	발 표 지	채 록 지	채록 년도	구연자
1	계모와 전실 딸	한국구전설화 Ⅷ	전북 정읍군	1924	이씨
2	계모가 팔을 자르고 내쫓은 처녀	한국구전설화 Ⅰ	평안북도	1937 1937 1938	김신영, 정성즉, 문신각
3	손 없는 색시	한국구비문학대계 1-9	경기도 용인군	1982	오수영, 여
4	전처딸 모해한 악독한 계모	한국구비문학대계 7-13	경북 대구시	1985	김음전, 여
5	계모에게 쫓겨난 손 없는 처녀	한국구비문학대계 7-14	경북 달성군	1985	김옥련, 여

위에서 본 것처럼 <손 없는 색시>는 북부 평안도¹⁵⁾, 중부 경기지방, 남쪽의

14) 신상운, 앞의 글.

15) 임석재 교수가 채록한 “계모가 팔을 자르고 내쫓은 처녀” 자료 末尾에는 다음과 같은 출처가 명시되어 있다.

* 1937年 1月 宣川郡 新府面 大陸洞 金信永

* “ 7月 鐵山郡 扶西面 石山洞 鄭聖則

영·호남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다.¹⁶⁾

본고에서는 <손 없는 색시>의 전체적인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시간적 순서에 따른 순차적 구조를 추출하고 가변적인 이야기 요소와 불변적인 이야기 요소를 구분하여 그 의미를 밝히도록 하겠다.

<손 없는 색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8개의 서사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¹⁷⁾

- A. 주인공이 어려서 어머니를 여윈다. (자료 1, 2, 3, 4, 5)
- B. 아버지의 재혼으로 계모를 맞는다. (자료 1, 2, 3, 4, 5)
- C. 주인공이 계모로 인해 손이 잘린 채 집에서 쫓겨난다.

* 1938年 1月 龍川郡 東下面 王仁東 文信珪

하나의 자료에 각기 다른 채록시기, 장소, 제보자가 병기되어 있다. 하나의 자료에서 다른 3명의 제공자들을 동시에 병기한 이유는 아마도 당시에는 3편의 자료가 채취되었으나 자료의 내용들이 大同小異하기 때문에 3편의 원자료를 한편으로 편집하여 기록한 것이 아닌가 한다.

16) 조희웅과 주종연은 『한국구전설화』 평안북도편 I의 “계모가 팔을 자르고 내쫓은 처녀”를 임석재에 의하여 1971년 교학사에서 간행한 어린이 독서물 『옛날이야기선집 3』에 수록된 “손을 잘린 처녀”의 原話로 보았다. (조희웅, ‘「손 없는 색시」(AT 706)’, 앞의 글, p.280.)(주종연, 韓國의 傳來民譚과 독일 Grimm童話와의 比較研究 I: “손 없는 색시”(Das Mädchen ohne Hände)’, 앞의 글, pp.26-27.)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한국구전설화』 VIII 전라북도편 “계모와 전실딸”을 발견하지 못한데서 온 오류라 할 수 있다. 『옛날이야기선집』의 “손을 잘린 처녀”와 『한국구전설화』 VIII 전라북도편 “계모와 전실딸”은 내용이 일치한다. 따라서 “계모와 전실딸”이 원화라 할 수 있다. 『옛날이야기선집』의 “손을 잘린 처녀”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겠다.

17) 기존에 조희웅과 주종연은 <손 없는 색시>의 구성요소를 추출하고 분석하였다. (조희웅, ‘「손 없는 색시」(AT 706)’, 앞의 글, pp.292-293.) (주종연, 韓國의 傳來民譚과 독일 Grimm童話와의 比較研究 I: “손 없는 색시”(Das Mädchen ohne Hände)’, 앞의 글, pp.26-31.) 필자는 <손 없는 색시>의 전체적인 성격과 의미를 규명하기 위해 그들의 분류를 참고로 하여 기본 서사구조를 다시금 정리하였다.

C₁. 주인공이 계모와 의붓형제의 학대로 계모에게 손이 잘린 채 집에서 쫓겨난다. (자료 1, 2)

C₂. 주인공이 계모의 낙태조작 모함에 의해 아버지에게 손이 잘린 채 집에서 쫓겨난다. (자료 3, 5)

C₃. 주인공이 계모의 모함에 의해 아버지에게 손이 잘린 채 집에서 쫓겨난다. (자료 4)

D. 정처없이 헤매다가 배(감)나무를 매개로 총각을 만나 결혼하게 된다. (자료 1, 2, 3, 4, 5)

E. 아이를 낳은 색시가 시댁을 나선다.

E₁ 아이를 낳은 색시가 친정집을 찾아간다. (자료 3)

E₂ 남편의 출타 후 아이를 낳은 색시는 계모의 편지 조작에 의해 쫓겨난다. (자료 1, 2, 4)

E₃ 남편의 출타 후 아이를 낳은 색시는 시어머니에 의해 쫓겨난다. (자료 5)

F. 샘물에서 물을 마시려다 손이 재생된다.

F₁ 물을 마시려는 순간 손이 재생된다. (자료 3)

F₂ 물을 마시려는데 아이가 물에 빠져 아이를 구하려던 순간 손이 재생된다. (자료 1, 2, 5)

F₃ 물을 마시려는데 뇌성벽력에 의해 우물 속에 빠져 우물 밖으로 나오려고 손을 내젓는 사이 손이 재생된다. (자료 4)

G. 어떤 고을에 정착하여 살다가 남편의 탐색으로 부부가 상봉한다. (자료 1, 2, 4, 5)

H. 계모의 모해가 밝혀지고 귀가하여 잘 산다. (1, 2, 3, 4, 5)

위의 서사단락으로 볼 때 <손 없는 색시>의 기본단락은 A, B, C, D, E, F,

H단락이라 할 수 있으며 자료 3이 이에 속한다. 자료 3은 E단락에서 과거를 치르기 위한 남편의 출타가 없기 때문에 시댁에서의 축출은 일어나지 않으며, F단락의 손이 재생되는 부분이 친정집을 들리려 가는 도중 샘물에서 물을 마시려다가 갑자기 손이 재생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자료 3은 G단락의 쫓겨난 후의 은거생활과 남편과의 상봉은 나타나지 않으며, 바로 H단락의 계모의 웅장으로 이야기가 끝을 맺는다. 이처럼 자료 3은 사건전개가 극적이지 못하고 인과관계마저 엉성하다. 그리고 가장 단순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구연자의 구연능력의 부족이나 망각으로 인해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한다. 나머지 네 편은 A단락~H단락까지 모두 나타나는데 자료 5는 E단락의 시댁에서의 축출이 시어머니에 의한 것으로 되어 있어 계모에 의해 편지가 바뀌지는 극적인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자료 1, 2, 4가 가장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료 1, 2, 4는 C단락에서 쥐를 이용한 낙태 모함은 나타나지 않으며, 전처딸이 쫓겨나게 되는 극적인 장치가 결여되어 있다. 자료 1과 2는 전체적으로 아버지의 존재가 완전히 배제되어 있고, C단락에서 계모·의붓형제와 전처딸 사이의 갈등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볼 때 C, E, F단락은 두드러진 변이를 보이며, 특히 G단락은 4편의 자료에서만 나타난다.

이와 같이 자료 3을 제외하면 <손 없는 색시>는 안정된 전승양상을 보여준다. 그러면 순차단락을 중심으로 각편의 변이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A. 단락은 서두 부분으로, 어떤 처녀가 어머니를 여원다는 내용이다. 대체로 딸 하나를 놓고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남매를 놓고(자료 5) 죽는 것으로 나타나는 자료도 있다. 어머니의 죽음은 앞으로의 사건 발단의 원인이 된다.

B. 단락은 아버지의 재혼으로 주인공이 계모를 맞이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대체로 후처로 들어오는 여인은 전처딸이 있는 것을 알고 들어온다. 그런데 아들은 숨기지 않으나 딸은 몰래 숨겨 놓고 후처를 들이는 경우도 있다. 계모는 전처 아들의 잠꼬대 때문에 전처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아버지가 딸을 숨긴 이유는 계모가 들어오면 과년한 딸에게 계모행세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자료 5). 이것은 계모의 영입이 이미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C. 단락은 주인공이 계모로부터 학대를 받으며, 결국엔 계모의 모함에 의해 집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내용이다. 계모는 시집갈 때가 된 전처딸이 매일 공부만 열심히 하기 때문에(자료 3), 집안이 편하기 위해서(자료 4), 남편이 과년한 딸을 감춘 채 재혼한 것에 대한 즉, 자기를 속인 것이 괘씸해서(자료 5) 전처딸을 미워하고 내쫓으려 한다. 대부분 전처딸은 과년한 나이로 인물도 잘 나고 솜씨도 좋은 것으로 나타나며, 계모는 이러한 전처딸을 시기한다. 계모는 이러한 주인공을 내쫓기 위해 쥐를 이용하여 혼전부정을 꾸미거나(자료 3,5), 집이 편하려면 전처딸을 내 쫓아야 한다고 모함하여(자료 4) 손을 자르고 내 쫓는다. 또는 계모가 아들의 '내쫓을 바에야 양손을 잘라서 내쫓으라'는 말을 듣고 (자료 2) 손을 자르고 내 쫓는 자료도 있으나, 빌어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 두 손을 잘라 버리고 내쫓는 자료도 있다.(자료 1) 여기서 자료 1, 2, 4는 전처딸이 쫓겨나게 되는 극적인 장치가 없다. 이때 손을 자를 때 사용된 도구는 농기구인 작두이며, 한편만 도끼로 나타나는데 문턱에 대고 도끼로 자르는 것으로 보아 작두와 차이는 없다. 손의 절단에 있어서는 대체로 양손이 다 잘린 것으로 나타나나 바른 손만 잘린 것으로 나타나는 자료가 있다.(자료 3) 그런데 집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연못에 빠뜨려 죽이라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명령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누이를 살려 보내준다. 연못에 빠뜨려 죽이려 하는 사건은 <장화홍련>형 설화나 <황대감의 딸>형 설화에 주로 나타난다. 따라서 앞의 유형

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자료 5)

D. 단락은 주인공이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 내용이다. 주인공이 배우자인 총각을 만나게 되는 장소는 대체로 배나무 위다. 그런데 나무에 올라가지 못하고 아래에 있는 것을 총각이 발견하는 경우도 있으며(자료 1, 2), 감나무로 나타나는 자료(자료 1, 2)도 있다. 여기서 나무 종류나 위·아래라는 위치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며, 종려나무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인공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과실을 먹으려 한 것이고, 이 과실나무가 심어져 있는 부잣집 도령은 자기 집 나무에 있는 처녀를 발견하고 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배나무 주인공과 총각의 혼인은 처음부터 성사되기도 하지만(자료 3), 대체로 한동안 같이 숨어 지내다가 부모에게 발각된 후 혼인을 치른다. 주인공은 혼인에서도 평탄하지 않는 시작을 하게 된다. 이것은 주인공이 손이 잘린 채 쫓겨나 거리를 헤매다가 우연히 총각을 만났으며,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E. 단락은 주인공이 재차 시댁에서 쫓겨나게 되는 내용이다. 주인공이 기를 낳은 후 바로 친정집으로 찾아가는 것으로 신랑이 과거를 보기 위해 출타하는 장면이나 계모나 시어머니에 의해 축출되는 장면이 나타나지 않는 자료도 있다(자료 3). 그러나 이러한 구성은 다섯 편 가운데 한편 밖에 나타나지 않으며, 이야기의 구성도 다른 자료에 비해 풍부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구술자의 망각이나 구연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자료는 시댁에서 재축출 된다. 주인공은 계모의 편지 조작으로 인해(자료 1, 2, 4) 시어머니에 의해(자료 5) 쫓겨나게 된다. 가문의 체면 때문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축출하는 것은 계모가 전처딸을 쫓아내기 위해 음모를 꾸미는 것에 비해 긴장감이 떨어진다. 주인공의 축출이 한번으로 끝나지 않고 재차 일어나는 이중의 시련은 여성이 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 치려야 하는 시련

의 과정이 그 만큼 컸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F. 단락은 시대에서 마저 쫓겨난 주인공이 정처없이 헤매다가 물을 마시려다가 손이 재생되는 내용이다. 시대에서 재차 쫓겨난 주인공은 정처없이 헤매다가 심한 기갈로 샘에 엎드려 물을 마시려하였다. 그런데 물을 마시려고 고개를 숙인 순간 샘물 속으로 등에 업힌 아이가 떨어져 버렸고 주인공은 물에 빠진 아이를 잡으려고 양팔을 뻗은 순간 손이 재생되었다.(자료 1, 2, 5) 이것은 아이를 구하려는 강한 모성의 극적인 발현에 의한 생성이라 할 수 있다. 또는 목이 말라 샘물에 엎드려 물을 마시려는 순간 손이 재생되는 경우도 있는데(자료 3) 손이 재생되는 계기가 극적이지 못하다. 목이 말라 우물가를 서성이던 색시가 갑자기 내리는 뇌성벽력에 의해 우물 속으로 빠지고 우물 속에서 팔을 휘젓는 순간 손이 재생되고 마을 사람들에게 의해 우물 밖으로 구출되는 경우도 있다.(자료 4)

G. 단락은 손이 재생된 주인공이 어느 마을에 정착하여 살다가 아내를 찾아 나선 남편에 의해 다시 상봉하게 되는 내용이다. 주인공은 주막(자료 1, 2), 또는 천태산 마고할미의 집에서(자료 4)에서 베나 품을 팔아가며 살아간다. 이때 과거에 급제하여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부인이 쫓겨난 것을 알고 엿장수로(자료 1, 2) 북, 바대 장수로(자료 5) 변장하여 아내를 찾아 헤매고 부부는 다시 상봉하게 된다.

H. 단락은 계모의 모함이 밝혀지고 주인공이 행복을 되찾는 내용이다. 주인공이 직접 친정을 찾아 계모의 모함을 밝히거나(자료 3), 훗날 장성한 주인공의 아들이 어미의 누명을 벗기고 계모를 관원에 고소하여 처참한 처벌을 받게 한다(자료 5). 또는 신랑이 계모를 응징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자료도 있다.(자료 1, 2) 여기서 계모의 응징 없이 함께 사는 것으로 나타나는 각편도 있으나(자료 4) 나머지 4편과 대부분의 '계모설화'에서 계모가 응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계모가 처벌받는 것이 보편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주인공은 어려운 상황을 인내로서 극복함으로써 계모와의 갈등을 완전히 해소하고 부당하게 상실되었던 가치를 회복한다.

지금까지 각각의 서사단락을 통해 그 변이양상을 살펴보았다. 이상 각편의 서사단락의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락 자료	A	B	C			D	E			F			G	H
			C ₁	C ₂	C ₃		E ₁	E ₂	E ₃	F ₁	F ₂	F ₃		
1	o	o	o	x	x	o	x	o	x	x	o	x	o	o
2	o	o	o	x	x	o	x	o	x	x	o	x	o	o
3	o	o	x	o	x	o	o	x	x	o	x	x	x	o
4	o	o	x	x	o	o	x	o	x	x	x	o	o	o
5	o	o	x	o	x	o	x	x	o	x	o	x	o	o

III. <손 없는 색시>譚의 구조와 의미

1. 통과제의담으로서의 구조와 의미

민담의 각 부분이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며 작품 전체를 이루는가 하는 것이 민담의 구조이다. 구조는 크게 순차적 구조와 병렬적 구조로 나눌 수 있다. 순차적 구조는 이야기를 순서에 따라 부분으로 나누고, 부분들의 근본적인 성격과 그 관계의 원리를 파악하자는 것이고, 병렬적 구조는 이야기의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이야기에 내포된 삶/죽음, 남성/여성 등의 기본적인 대립을 찾아내 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구조 찾기는 한 영역과 다른 영역 사이의 논리적 관계에서 존재하는 은유를 발견하는 것이다.¹⁸⁾ 필자는 순차적 구조를 통해 <손 없는 색시>의 서사 단락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으며 각 단락은 전체 서사와 어떤 관련성을 맺고 있는가를 밝혀보고자 한다.

<손 없는 색시>는 계모와 전처딸의 갈등이 서사전개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부모와 자녀 관계는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로 애정과 순종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발생하더라도 겉으로 표면화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아버지의 재혼으로 성립된 계모와 전처딸과의 관계는 혈연이나 애정을 기초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질감이 개입되며, 계모는 가족이면서 가족이 아닌 移住人, 주변인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전처딸과 마찰과 갈등이 일어난다. 이러한 갈등은 계모와 전처딸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이라는 상하관계이기 때문에 계모의 일방적인 학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더욱이 계모가 의붓형제들을 데리고 들어 온 경우에는 의붓형제에 의한 학대까지 더해진다. <

18) 장덕순,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1984, pp.65-66.

손 없는 색시>에서 전처소생이 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매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계모의 전처아들에 대한 학대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계속되는 사건들에서 부친의 존재는 전혀 의식할 수 없으며 계모의 완전 주도하에 이루어진다. 이것은 이야기의 초점이 계모와 전처딸 사이의 갈등, 즉 여성간의 갈등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계모와 전처소생간의 갈등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전처딸의 통과의례 과정을 함께 보여 준다. 개인이 일생을 통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고비들은 출생, 성년, 결혼, 상례 등으로 그 과정마다 일정한 시기에 당사자를 위한 의례가 베풀어 지는데 이것을 통과의례라 한다.¹⁹⁾ 통과의례는 통과의례를 거치게 될 대상의 존재론적 위치 변화를 추구한다. 즉 시련과 죽음을 겪고 난 신참자가 질적 변화를 받아 새로운 사람이 되어 그 사회 구성원에 새롭게 편입하는 삶의 전환점이다. <손 없는 색시>의 주인공은 이러한 통과의례의 과정을 겪는다. 따라서 계모와 전처딸 사이의 갈등을 통과의례 구조 속에서 살펴봄으로써 <손 없는 색시>의 본질적 의미와 전승자의 의식에 한 발짝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장에서는 각 단락을 중심으로 <손 없는 색시>의 통과제의담으로서의 구조와 의미를 조망해 보도록 하겠다.

<손 없는 색시>의 서사구조는 계모와 전처소생간의 갈등 구조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아버지의 개입으로 둘 사이의 갈등·대립구도는 삼자간의 갈등·대립 구도로 확산된다. 이러한 삼자간의 갈등·대립은 남편에 의해 조정되며 계모의 패배와 아버지와 화해로 종결된다.

그러면 먼저 <손 없는 색시>의 순차적 서사 단락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9) 의례의 구조를 사회와 일상의 관계를 나누어 보면

- ① 사회와 분리되는 分離儀禮
- ② 일상을 초월하는 轉換(轉移)儀禮
- ③ 사회로 환원하는 統合(結合)儀禮 의 세 단계로 구성된다. (반계넵, 전경수역, 『통과의례』, 을유문화사, 1985.)

- A. 주인공이 어려서 어머니를 여윈다.
- B. 아버지의 재혼으로 계모를 맞는다.
- C. 주인공이 계모로 인해 손이 잘린 채 집에서 쫓겨난다.
- D. 배나무를 매개로 총각을 만나 결혼하게 된다.
- E. 계모의 모함으로 인해 시댁에서 쫓겨난다.
- F. 물을 마시려다가 손이 재생된다.
- G. 남편의 탐색으로 부부가 상봉한다.
- H. 계모를 징벌하고 복귀하여 잘 산다.

이렇게 볼 때 <손 없는 색시>의 공통적인 유형구조는 A. 친모의 죽음(-) → B. 계모의 영입(+) → C. 단수와 축출(-) → D. 혼인(+) → E. 재축출(-) → F. 손의 재생(+) → G. 재결합(+) → H. 계모 징벌과 복귀(+)라 할 수 있다.²⁰⁾

<손 없는 색시>는 대체로 위와 같은 서사단락이 모여 텍스트 전체를 이루고 있다. A에서 주인공이 어려서 친모를 여윈은 주인공이 겪는 최초의 시련으로 의외의 고난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은 주인공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결핍으로 작용한다. 어머니의 죽음으로 가정이 어렵게 되고, 집안에 아들이 없을 경우 가문을 지속시킬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친의 사망은 계모를 등장시키는 원인이 된다.

B에서 아버지는 아내의 죽음으로 파생된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 후처를 영입한다. 이것은 주인공이 다시 어머니를 얻는다는 의미에서 행운이라 할 수

20) 여기서 (+)는 행운을, (-)는 고난을 의미한다.

있다.

그러나 계모의 영입은 또 다른 시련을 불러온다. C에서 주인공은 계모의 모함으로 손이 잘린 채 쫓겨나는 시련을 겪는다. 이것은 의외의 고난이라 할 수 있다. 전처딸에 대한 미움은 계모로 하여금 전처딸을 쫓아내기 위한 모략을 꾸미게 만든다. 계모는 묵은 집터에서 난 불메밀로 묵을 만들거나 떡장수로부터 치명적 독약인 돌메밀묵을 얻어 전처딸에게 먹여, 얼굴에 기미가 끼고 복통을 일으키게 한 후 쥐를 잡아 껌질을 벗겨 치마 속에 넣고 아이를 유산한 것처럼 속인다.²¹⁾ 조선후기 이래로 정절과 순종은 여성의 가장 높은 미덕의 하나는 간주되었으며 제도적으로 생명을 걸고 정절을 지키도록 교육받았다. 이렇게 볼 때 쥐로 조작한 낙태 사건은 여성의 ‘정절’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며, 여성의 의식세계를 지배하는 전통적 윤리관념인 정절의 훼손은 전처딸의 목숨까지 잃게 만들 수 있는 사건인 것이다. 결국 주인공은 부정이라는 누명으로 인하여 손이 잘린 채 쫓겨난다.

그런데 계모가 모함을 꾸미는 과정과 손을 잘리고 축출되는 장면은 긴 호흡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되고 있는 이유는 계모의 전처딸에 대한 모함이 극적이기도 하지만 서사적 관심이 여기에 놓여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성의 정절 문제를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이용하여 계

21) 위와 같이 계모가 전처딸을 없애버리기 위해 커다란 쥐를 잡아 껌질을 벗긴 후 잠자는 딸의 속옷 속에 넣어 두고는 딸이 낙태를 했다고 하는 식의 부정한 여자라는 누명을 씌우는 방법은 “손 없는 색시”, “계모에게 쫓겨난 손 없는 처녀” 외에 “까마귀와 접동새의 유래”(대계 2-6), “계모의 흉계로 쫓겨난 딸의 상봉”(3-4), “장화홍련”(5-2) “모함을 이겨낸 황대감의 딸”(6-4), “이도령과 낭자”(대계 6-11), “전처딸을 몹시한 계모의 최후”(7-10), “못된 계모와 낭자”(7-12), “계모의 간계를 막은 색시”(7-13), “숯 굽는 총각과 결혼한 처녀”(8-11), “이정승의 며느리”(대계 7-6), “계모와 9형제와 누이”(한국구전설화 1권), 에서도 발견된다. 이처럼 ‘계모설화’에서 전처딸을 없애기 위해 쥐를 이용하여 낙태를 조작하는 혼전부정은 이미 ‘계모설화’에서 일반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모는 전처자식을 부정한 여자로 몰아 전처딸을 내쫓으려 계획하고 가문과 체면을 중시하는 가장은 사건의 전후 살핌 없이 자식을 내쫓는 비극을 초래한다. 이처럼 주인공의 시련은 계모의 모함과 아버지의 분별없고 냉혹한 처단에 의해 일어난다. 여기서 전처딸의 잘려진 손은 피한방울 흘림 없이 亡母의 도움으로 하늘로 날아가거나, 바른 손은 독수리가 왼손은 새매가 물어 가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것은 주인공의 斷手 사건은 잔인하기 이를 데 없으며, 주인공은 억울하게 희생되는 불쌍한 처녀라는 전승자의 의식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주인공의 斷手와 축출은 옛것(묵은 것)을 버리는 분리의례라 할 수 있다. 주인공이 살던 집(마을)은 주인공이 태어나고 자란 곳으로 축출 전에는 떠나 본 적이 없는 닫힌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초입자는 새로운 사회로 통합되기 위해 이전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특정 장소로 격리 수용된다. 이로써 그는 일단 이전 사회를 떠나 죽게 된다.²²⁾ 주인공은 비로소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 열린 공간으로 이동하게 되며, 자신이 살던 가정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이나 고생을 뜻하기 때문에 열린 공간으로의 이동은 많은 시련과 고통이 뒤따른다. 그러나 주인공은 시련을 통하여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넓은 사유를 시작하게 된다. 이동은 개척, 즉 새로운 것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손'의 절단과 축출은 이전사회에서의 분리, 즉 새로운 사회로 통합되기 위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삶과 죽음의 중간 단계, 전이의 단계, 정신적인 죽음의 단계를 나타내기 위한 설정²³⁾인 것이다.

계모의 영입으로 인한 결핍의 해소가 전설 자식의 斷手와 축출이라는 결과를 가져와 또 다시 결핍에 놓인 주인공은 D에서 총각을 만나 혼인하게 되면

22) 오출세, '한국서사문학에 나타난 통과례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 논문, 1990, p.29.

23) 신연우, 앞의 글, p.1.

서 해소된다. 축출된 주인공은 방황하다가 어느 부잣집의 배나무를 발견하고 배를 먹으려 하고 이러한 처녀를 부잣집 총각이 발견하게 된다. 이것은 주인공에게 의외의 행운이라 할 수 있다. 이때 총각은 주인공이 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망설임이나 거리낌없이 결연을 맺는다. 이것은 부정이라는 모함으로 억울하게 손이 잘려진 채 쫓겨난 주인공에 대한 전승자의 동정의식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쫓겨난 주인공은 배나 감을 먹기 위해 과실나무 가지 사이에 앉아 있었다. 이것은 가장 일반적이고 지속적인 유형 중의 하나인 대여신-식물-문장적 동물-사제의 약화된 모습이 아닌가 한다. 식물의 상징 옆에 여신이 있는 것은 고대의 도상과 신화에서 나무가 지니고 있는 의미, 즉 우주의 풍요의 무진장한 원천이란 의미를 확증해준다. 인더스 강 유역의 하라파나 모헨조다로의 발굴에 의하여 아주 명백하게 밝혀진 전 아리아 문명에서 대여신과 식물의 동질·동체성은 성스러운 무화과나무와 그 옆의 벌거벗은 여신 약시니의 결합이나 여신의 생식기로부터 나오고 있는 초목에 의하여 표현되고 있다. 성스러운 무화과나무의 화상이 많은 만큼 벌거벗은 대여신을 표상 하는 상도 많다. 그것은 이집트를 포함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도처에 있는 청동기 문명에서 일반적인 도상의 모티프이다. 성스러운 나무는 울타리 안에 있으며, 가끔 벌거벗은 여신은 그 울 한가운데서 자라고 있는 성스러운 무화과나무 두 가지 사이에 서 있다. 이 도상의 공간은 성소와 '중앙'을 나타낸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아프리카 전지역과 인도에서는 수액이 가득 찬 나무는 신성한 모성을 상징한다. 여신-나무라는 모티프는 문장적 동물이 그 옆에 있음으로써 완전한 것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인도 도상에서 보존되어 왔다.²⁴⁾

그리고 이슬람교의 문헌에는 여성을 '밭' '가지가 훔 정도로 열매가 달린 포도나무'로 비유하였고, 12세기의 찬미가 중에는 마리아를 가리켜 '갈지 않

24) 엘리아데, 이은봉역, 『종교형태론』, 한길사, 1997, pp.373-374.

은 땅에 과실이 열렸도다'라고 한 것이 있다.²⁵⁾

이처럼 열매를 가지고 있는 종여(棕櫚)는 여성의 상징으로²⁶⁾ 쫓겨난 주인공은 배나무가 매개가 되어 배우자를 만나게 된다. 주인공이 한 입씩 물어 먹고 떨어뜨린 落果가 총각으로 하여금 나무 위의 주인공을 찾아내게 하는 한 지표 역할²⁷⁾을 한 것이다. 발견은 새로운 사건으로 주인공의 삶의 전환을 가져다주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따라서 배나무가 있는 부잣집의 딸은 두 남녀의 만남의 장소 즉, 결연의 장소라 할 수 있으며, 떨어진 과일은 남녀의 결연을 가능케 한 촉매적 기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인공은 자신을 인정해 주는 남자를 만나 혼인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게 된다. 그런데 주인공의 혼인은 정상적인 혼인형태를 띠지 않는다. 총각은 주인공을 자기 방으로 데리고 가 방안 퀘(벽장)속이나 병풍 뒤에 숨겨 놓고 은밀한 동거를 시작한다. 이러한 두 사람의 동거는 어느 기간 지속되고, 총각의 태도를 수상히 여긴 부모에게 발각됨으로써 비로소 동거는 끝나고 혼인을 하게 된다. 이처럼 두 사람의 만남과 동거가 어른의 주선이나 동의 없이 몰래 이루어진 것은 비정상적인 신체로 인하여 주인공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혼인이 그만큼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주인공의 혼인은 어른이 되는 성년의례에 해당된다. 미혼인 개인은 사회적으로 미성숙 상태로 인정되어 완전한 사회적 존재가 아니다. 미혼자는 비록 신체적으로 성숙하였다 하여도 혼인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온전한 개인으로

25) 조희웅, '성승배와 성상징(二)', 『국민대어문학논 4』, 1985, p.83.

26) 존.뉴우튼(J. Newton)은 열매를 가지고 있는 棕櫚(female date palm), 석류처럼 많은 씨가 들어있는 열매, 정원, 무화과 등을 여성의 상징으로 보았다. (조희웅, 『설화학강요』, 새문사, 1993, p.151)

27) 주종연, '韓國의 傳來民譚과 독일 Grimm童話와의 比較研究 I ; "손 없는 색시"(Das Madchen ohne hande)' 앞의 글, p.32.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미혼자는 그 존재 자체가 완전한 인격체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미혼자는 그 자체로 결핍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핍상황을 해소시키는 행위가 혼인인 것이다. 혼인은 그 자체가 통과 의례에 속하는 것으로 혼인을 통해 새로운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완전한 인격체로 인정받는 것이다.²⁸⁾ 이것은 우리 나라의 가장 오래된 신화인 단군신화에서부터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단군신화의 웅녀는 혼전의 여성으로 쑥과 마늘을 먹고 1백일을 동굴에서 은거한 뒤에 비로소 신랑을 맞게 된다. 이것은 미성년이던 한 여성이 성년을 맞아 결혼하게 된 과정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서 웅녀의 은거가 成年祭儀에 임한 여성의 斷絶隔離의 제전의 표현이라는 추정을 하게 된다. 격리의 제의는 통과 의례의 한 절차이며 미성년에서 성년으로 '轉生'하는 과정을 상징하는 것이다. '轉生'이란 새로운 삶, 즉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며, 그것은 재생인 것이다. 이 절차가 지켜져야 미성년이던 한 소녀가 한 사람의 여성이 되는 것이다.²⁹⁾

종래의 사회상태로부터 다른 새로운 사회상태로의 가입은 소정의 절차를 필요로 하며, 그 나름의 종교적인 의례를 거쳤다. 이때 종래의 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위한 고통을 거쳐야 새로운 집단으로의 참여가 보장되었다.³⁰⁾

결국 <손 없는 색시>는 자신이 속해있던 기존사회로부터 분리되어 새로운 사회로 편입하기 위하여, 斷手와 축출이라는 분리의 고통을 겪고 혼인이라는 새로운 삶의 전이를 통하여 미성년에서 완전한 인격체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인공의 이러한 행운은 오래가지 못한다. 혼인으로 극복된 시련이 E에서 다시 계모의 개입에 의해 좌절되기 때문이다. 혼인 후 새로운 삶을 시

28) 노영근, '친부탐색담 민담의 구조와 의미', 『구비문학연구 6집』, 박이정, 1998, p.318.

29) 김열규, '신화와 나무', 『한국의 신화』, 일조각, 1991, pp.53-57.

30) 엘리아데, 앞의 글 p.119.

작한 주인공이 또 다시 계모의 음모에 의해 시댁에서 축출되는 사건은 주인공에게 있어 의외의 고난인 것이다.

그런데 전처딸의 최초의 시련이 친모의 결핍으로 인하여 비롯되었다면, 두 번째의 시련은 배우자의 부재로 인하여 생겨난다. 이 이중의 시련은 모두 계모에 의하여 발생된다는 점에서 계모의 악덕함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한 장치라 할 수 있다. 주인공이 시댁에서 다시 쫓겨나는 사건은 편지를 전달하는 전령이 계모의 집(또는 계모가 운영하는 주막)에 유숙하였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인데 이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 너무나 과장되어 있다. 더욱이 전령이 소유한 편지가 전처딸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을 계모가 알만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편지를 조작하는 것 또한 개연성이 없다. 이처럼 개연성이 없는 사건을 만들어 전처딸이 시댁에서 쫓겨나는 원인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반복을 통하여 계모와 전처딸의 갈등을 부각시키려고 한 까닭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계모의 개입에 의한 축출보다 오히려 시어머니에 의해 쫓겨나는 구성이 더 설득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모를 등장시키는 것은 이야기를 더 극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기 위한 의도인 것이며, 계모와 전처딸 사이의 갈등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려는 장치인 것이다. 결국, 주인공의 혼인을 통한 행복이 항구적이지 못한 것은 계모와의 갈등이 아직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 있었기 때문이며, 이렇게 해결되지 못한 갈등은 또 다시 주인공의 행복을 방해하려는 계모의 행위를 용이케 한 것이다.

혼인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한 전처딸이 시댁에서 쫓겨나 남편과 이별하게 되는 시련은 주인공이 혼인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기는 했지만, 불완전한 존재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혼인 후에도 재생되지 않는 손에서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절단된 손은 혼인 후에도 재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을 통한 결핍

의 해소는 완전한 것일 수 없으며, 이러한 불완전한 해소는 언제든지 다시 결핍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혼인을 통한 전처딸의 결핍의 해소는 일시적인 해소에 지나지 않으며 혼인을 통한 정체성의 확립은 완전한 자기 의식에 의한 정체성의 회복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주인공의 두 차례나 반복되는 축출은 기존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미성년에서 성인으로 나아가는 전이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서의 2차 분리를 통해 여성성의 확장이라는 보다 높은 차원의 전이를 보여 주기 위함이라 생각된다. <손 없는 색시>는 여성이 자신의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준다 하겠다.

F에서 시대에서 재차 쫓겨난 주인공은 심한 기갈로 샘에 엎드려 물을 마시려고 고개를 숙인 순간 샘물 속으로 등에 업힌 아이가 떨어져 물에 빠진 아이를 잡으려고 양팔을 뻗었을 때 양손이 재생된다. 이것은 주인공에게 의외의 행운이라 할 수 있다. 손을 되찾은 주인공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며 적극적인 시련의 극복은 연속적인 행운을 가져온다.

그런데 이러한 주인공의 손의 재생은 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와 관련이 깊다. 고대인들은 물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생명이 물로부터 탄생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물을 만물의 근원이자 여성의 상징으로 보았다.³¹⁾ 물의 생생력과 여성 상징은 삼국유사 卷一, 奇異 第一 신라시조 혁거세왕조와 삼국유사, 卷第二, 기이 第二 무왕조에서도 발견된다.

「삼국유사」 신라시조 혁거세왕조에 보면 揚山 밑 蘿井이라는 우물가에 자줏빛 알 한 개가 발견되었는데 얼마 후 그 안에서 童子가 나왔다. 그를 東泉에 목욕시켰더니 광채가 났다. 그가 바로 신라시조인 혁거세왕이다. 이날 사랑리에 있는 關英井가에 계룡이 나타나서 왼쪽 갈비에서 어린 계집애를 낳았는데 얼굴과 모습이 매우 고왔으나 입술이 마치 닭의 입부리와 같아 월성 북쪽에

31) 조희웅, 『설화학강요』, 앞의 글, p.166.

있는 냇물에 목욕을 시켰더니 그 부리가 떨어졌다. 그녀는 후에 왕후가 되었다.³²⁾ 「삼국유사」 무왕조에는, 무왕의 어머니가 서울 남쪽 못가에 집을 짓고 살았는데, 못 속의 龍과 관계하여 璋(무왕의 이름)을 낳았다.³³⁾ 이처럼 蘿井과 關英井, 그리고 南池의 ‘물’은 ‘생생력’과 ‘여성성’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정화수 같이 맑은 물이 고인 우물은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가 되며, 우묵하게 땅 속으로 파인 우물은 이때 동굴처럼 再生(rebirth)하는 聖所의 의미를, 샘물 또한 정화나 풍요 또는 生生力(fertility)의 의미를 지니기에 우물물은 이중으로 겹쳐져 그 의미와 효험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하다.³⁴⁾

주인공의 손은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려는 순간 재생되거나, 물을 마시려던 순간 재생된다. 따라서 주인공의 손의 재생은 강한 모성에 의한 재생이며, 보다 근원적으로는 물의 생생력에 의한 재생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물에 의한 손의 재생은 주술적인 성격을 가진다. 그런데 주인공의 손이 재생되는 과정은 침례와 유사하다. 주인공은 물에 빠진 아이를 건지는 과정에서 손을 물에 담그게 된다. 비록 온 몸이 물에 잠겨진 것은 아니지만 상실되었던 손이 물에 닿음으로써 재생되므로 침례의 일종이라 할 수 있으며, 물을 마시려던 순간 재생된 것도 결국은 물과의 접촉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역시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또한 주인공이 아이와 함께 우물 속으로 빠지는 모습은 온전한 침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침례는 형태 이전으로 되돌아감, 완전한 재생, 새로운 탄생으로 회귀하는 것을 상징한다. 물에 들어감은 형태의 해소, 존재 이전의 무형태성으로 돌아가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물은 가입의례에 의하여 ‘새로운 탄생’을 부여하고 주술적 의례에 의하여 치유한다.³⁵⁾ 이

32) 일연, 이민수 역, 『삼국유사』, 을유문화사, 1998, pp.79-83.

33) 일연, 앞의 글, pp.194-196.

34) 주종연, ‘韓國의 傳來民譚과 독일 Grimm童話와의 比較研究 I ; “손 없는 색시”(Das Madchen ohne hande)’, 앞의 글, p.33.

처럼 주인공의 斷手라는 형태의 해소는 물과의 접촉으로 다시 회복되며 '새로운 탄생'으로 이어진다.

계모에 의해 축출된 주인공이 갈증과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나무 위에서 과실을 따먹은 것이 총각을 만나 혼인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처럼,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샘물을 마시려던 것이 손의 재생을 가져온다. 이처럼 과실나무와 물이 모두 여성의 상징이며 결핍을 해소시키는 대상임을 볼 때 <손 없는 색시>가 통과의례의 과정을 보여주는 설화임은 더욱 분명해진다.

G에서 주인공은 손의 재생 후 비로소 시련을 적극적으로 극복하기 시작한다. 주인공은 아들과 함께 천태산 마고할미의 집, 주막집에 정착하여 베를 짜고 품을 팔며, 아들의 육아와 생계를 스스로 해결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이 기거하고 있는 집안을 부유하게 만든다. 손의 재생 이전의 소극적·수동적인 삶이 주체적·능동적인 삶으로 바뀐 것이다.

그러나 주인공의 손의 재생으로 결핍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기존 집단으로의 복귀와 명예 회복의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과거 급제하여 귀가한 신랑이 아내를 잃었다는 사실을 알고 아내를 찾아나섬으로써 해결된다. 주인공은 남편의 아내 탐색³⁶⁾에 의해 남편과 재결합하고 원래의 집단으로 복귀하게 되며, 이러한 남편과의 재결합, 가족과의 재결합에 의해 주인공의 시련은 완전히 해소된다.

조선조 사회에서 한 개인은 그 자체로 독립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家

35) 엘리아데, 앞의 글, p.265.

36) 조희웅은 괴물 탐색과 아울러 또 하나의 대표적인 탐색으로 가족 탐색담을 들었다. 이때 가족 중에서도 부친·남편·아내 찾기가 일반적으로 나타나며 '아내 찾기' 모티프가 나타난 예로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된 것으로는 <신데렐라> <손 없는 색시> <유괴된 공주>를, 한국에서는 <콩쥐팍쥐>, <손 없는 아내>, <아내의 초상> <그림 속 미녀>를 들었다. 그는 '아내 찾기'는 가족 탐색 범주에 넣을 수 있으며, 마음씨 나쁜 가족에 의한 축출로 인하여 겪는 시련이 남편에 의하여 구조된다고 설명하였다. (조희웅, 『설화학강요』, 앞의 글, pp.129-131.)

門'의 일원으로서 존재한다.³⁷⁾ 이렇게 볼 때 주인공과 아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완전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남편의 아내 탐색에 의한 부부 재결합은 母子가 다시 가문의 한 성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미하며, 공동체 생활에서 사회적 결합의 재확인 의미를 갖는다. 결국 시대에 쫓겨난 주인공이 다시 부부의 연을 잇고 가문의 성원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새로운 상태로 이행하는 재통합의례라 할 수 있다. 이때 주인공이 사회성원으로 다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손의 재생, 즉 완전한 인격체로서의 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처럼 <손 없는 색시>의 주인공은 가족과의 분리, 시대과의 분리라는 이중의 고난을 겪은 후에야 본시 속했던 사회 집단으로 재편입 된다. 어느 사회에서든지 일정한 연령에 차면 성인으로 인정하기 위해 어떤 기준이 있었으며 이러한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말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이겨내야만 했다.³⁸⁾ 주인공은 시련의 과정을 통해 그 이전과는 현저하게 다른 환경의 상태로 상승한 채 새로이 편입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결국 <손 없는 색시>의 주인공이 겪은 시련은 성인이 되기 위한 입사식 즉 성인의례의 과정이었으며, 주인공은 성인이 되기 위한 시련의 과정을 모두 통과함으로써 어린 세계의 죽음을 거쳐 성인으로서 재생될 수 있었던 것이다.

본래의 집단으로 복귀한 주인공은 H에서 누명을 벗고 계모를 처벌함으로써 주인공의 모든 시련은 완전히 해소되고 행복을 얻는다. 결국, 주인공이 되찾은 행복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내와 노력으로 자신을 지켜내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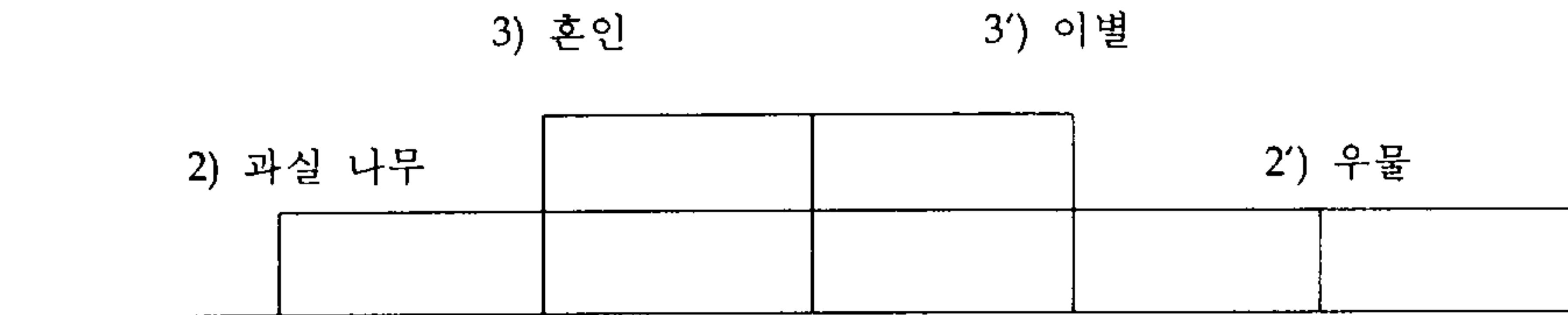
지금까지 <손 없는 색시>의 서사단락의 기능과 관계의 특성을 총체적 구조 안에서 해명하고자 하였다. 위에서 본 것처럼 <손 없는 색시>는 친모의 죽음이라는 최초의 결핍으로부터 출발하여 계모의 모함에 의하여 시련을 겪

37) 노영근, 앞의 글, p.321.

38) 최인학, '민담의 본질연구', 『구전설화연구』, 새문사, 1994, p.50.

게 되고, 이러한 시련과 역경을 모두 극복함으로써 기존의 집단으로 복귀하고 계모를 징벌한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전체적으로 고난(결핍)과 행운(해소)이 반복적으로 순차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A에서 H까지의 단락을 살펴보면 뒤의 단락은 앞의 단락을 부정하고 있다. A는 고난이나 B는 행운이다. 그러나 B의 행운 뒤에 C의 고난이 다시 되풀이된다. 즉 <손 없는 색시>의 구조는 '고난'과 '행운'이라는 두 가지 단락소의 연속적인 대립·부정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하겠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주인공이 겪은 축출, 혼인, 이별, 재생, 재결합, 복귀라는 과정은 주인공에게 있어 생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들이다. <손 없는 색시>의 주인공은 공동체에서 분리되어 시련을 겪다가 마침내 다시 공동체로 복귀한다. 주인공이 겪는 시련은 분리의례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혼인을 통한 행운은 통합의례를 의미한다. 그런데 시련이 혼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출로 인해 새로운 국면의 시련이 다시 시작된다. 따라서 혼인을 통한 통합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통합이 아니라 전환의 연속선상에 있는 통합이라 할 수 있다. 진정한 통합은 손의 재생 이후에 일어난다. 손의 재생 이후 주인공은 남편과 재결합하고 복귀하여 비로소 완전한 통합을 이룬다. 즉, 시련이 완전히 해소된다. 이렇게 볼 때 주인공이 겪은 고난(결핍)-행운(해소)의 반복적 순환은 통과의례적 과정에서 주인공이 겪는 <분리-전환-통합>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손 없는 색시>의 순차적 구조에서 찾아지는 고난(결핍)-행운(해소)의 반복이라는 2단 구조는 주인공의 <분리-전환-통합>이라는 통과의례의 3단 구조와 맞물릴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이것은 <손 없는 색시>譚의 행복한 결말이 주인공의 완전한 성인으로서의 통합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손 없는 색시>의 통과의례적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손을 잘림·축출		1') 손의 재생·복귀
전반부(격리)-----	시련	----- 후반부(재편입)
분리-----	전환	----- 통합 ³⁹⁾

<손 없는 색시>는 혼인과 이별을 기점으로 혼인까지의 시련과 행운의 성격이 이별 이후의 시련과 행운의 성격과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손 없는 색시>는 손을 잘림·축출→과실나무→혼인으로 구성된 전반부와 이

39) 신연우는 <손 없는 색시>를 색시의 성에 대한 인식의 표현과 관련하여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도표화하였다.

전반부	----	후반부
(1) 손 잘림	\ /	(3') 남편 떠남
(2) 나무 과일	—	(2') 샘
(3) 남편 얻음	/ \	(1') 손 얻음

신연우는 <손 없는 색시>를 한 여성이 부모와 사회에 의해 억압된 성 의식 때문에 삶의 방향성을 잃었다가 재생의 의례를 거쳐 다시 온전하고 새로운 삶을 인식하게 되는 주제의 이야기라고 보았다. 그는 <손 없는 색시>의 통과제의가 색시의 여성적 성 의식의 재생일 뿐 아니라, 인간 의식의 재생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 통과제의가 주목될 가치가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는 전체적으로 여성 성 의식의 성장이라는 심리학적 측면에서 <손 없는 색시>를 고찰하였고, 인간 의식의 확장 또한 부정적 성 의식이 긍정적인 성 의식으로 전환한데서 온 것으로 즉, 성 의식의 확장에서 온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손 없는 색시>를 성 의식에 국한하지 않고 여성의식, 정체성, 주체성, 개체화, 인격화, 성 등을 모두 포함한 여성으로서의 인간 의식의 확장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하였다. 따라서 <손 없는 색시>를 여성 통과제의로 본 시각은 같으나 성 의식에 천착한 신연우 논의와는 접근을 달리한다.

별→우물→손의재생·복귀라는 후반부로 나눌 수 있으며, 전체는 전반과 후반이 상호 대칭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다시 격리→시련→재편입(분리→전환→통합)으로 나눌 수 있다.

<손 없는 색시>에서 가장 중요한 모티프는 손으로, 손이 절단되었다가 다시 재생되었다는 것인데, 손이 잘라진다-손 없이 지낸다-손이 다시 붙었다는 일련의 과정은 위에서 본 것처럼 <분리-전이-통합>의 통과례⁴⁰⁾였으며 손의 절단은 기존사회로부터의 분리 즉, 미성년으로서의 삶과의 분리이며, 손의 재생은 '새로운 사회로의 통합' 즉, 성인으로서의 삶과의 통합인 것이다. 축출 후 혼인을 통하여 성인으로써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는 하였으나 새로운 사회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불안정한 생활이 손의 재생으로 적극적인 삶, 의식적인 삶으로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축출 후에서 손의 재생 전까지의 삶이 주인공에게 있어서는 의식의 변화, 정신적인 성숙을 가져오는 전이기에 해당되는 것이다. 결국 <손 없는 색시>는 즉 추방과 복귀, 이별과 재결합, 결핍과 충족 등이 반전되는 구조의 변주⁴¹⁾이며 여성의 정체성의 확립, 父母로부터의 온전한 분리와 부부로

40) 신연우는 <손 없는 색시>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손으로 보고 손이 잘라진다-손 없이 지낸다-손이 다시 붙었다는 일련의 과정을 <분리-전이-통합>통과제의적 구도를 갖고 있는 이야기로 보았다. 필자도 <손 없는 색시>가 여성의 통과제의를 보여주는 설화이며 이 설화의 핵심이 손의 분리와 결합에 있음에 동의하고 신연우가 지적한대로 분리-전이-통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자 하였다. 그런데 신연우는 손의 분리와 결합이 주인공의 성 의식의 성장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색시의 성 의식이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변화해 가는 과정으로 여성의 통과제의를 보여준다고 보았다. 이것은 주인공의 통과례 과정을 여성의 성의식에 국한하여 해석한 데서 무리가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필자는 여성의 성 의식에 국한하지 않고 여성이라는 인간의 정체성을 포함한 시각에서 접근하여 해명하고자 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여성의 성의식의 측면에서만 접근함으로써 해명이 용이지 않았던 부분도 해명이 가능해 졌다.

41) 김재용, '계모형 고소설의 시학적 연구', 서강대 박사학위 논문, 1991, p.49.

서의 온전한 통합에의 지향성을 보여주는 入社式의 통과제의인 것이다.

2. <손 없는 색시>譚의 사회사적 의미

(1) 가부장 권위에 대한 도전

여성이 후처자리로 들어갈 때 대부분이 초혼으로 나타나지만 前夫의 소생을 데리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 남성의 재혼 못지 않게 여성의 재혼도 적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조선시대 가족 관계는 지금 못지 않게 복잡할 뿐만 아니라 매우 가변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재혼의 결과로 많은 자녀들이 계부모와 의붓형제자매, 재혼 후 출산한 반형제자매와 함께 살게 된다. 복합가족의 모습을 띤 가족 구성원 사이에는 연대감이 약할 수밖에 없으며 미묘한 갈등 또한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조선시대와 같이 남성과 여성 사이의, 적자녀와 서자녀 사이의 불평등이 심했던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설화에 나타나는 사악한 계모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이러한 현상을 반증해 준다. 그런데 사악한 계모에 관한 이야기는 많은 반면 계부에 관한 이야기는 별로 없다. 한 예로 “계모가 팔을 자르고 내쫓은 처녀”의 경우 계모는 아들 여럿을 데리고 들어온다. 계모가 데리고 들어온 아들들의 입장에서는 처녀의 아버지는 계부가 된다. 그러나 계부와 의붓아들간의 갈등에 대한 언급은 찾을 수 없다. 다만 의붓아들이 전처소생의 딸을 학대하였으니 계부와 의붓아들간의 갈등이 존재했을 것이며, 역으로 계부가 의붓아들을 박대함으로써 계모와 의붓형제가 전처딸을 미워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추측만이 가능할 뿐이다.

후처의 자리에 있는 여성들을 악의 전형으로 만들고 전처 소생들을 선한 존재로 만들어, 권선징악에 의해 계모는 응징을 받고 전처소생은 행복을 얻

는다는 ‘계모설화’는 계모가 자신을 단순히 낯선 한 가정에서 죽은 부인의 대리인 구실을 하는 인물이 아닌 주체적인 인격체로 인식하면서, 자신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전설 자식과 마찰을 빚게 되었고, 사회적 인식은 그러한 사건을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하여 보려 한 데에서⁴²⁾ 발생의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가정내의 갈등에서 비롯된 모든 문제를 계모의 책임으로 돌림으로써 즉, 계모를 희생양으로 만듦으로써 가부장권을 유지하려는 남성중심 사고가 숨어 있다.⁴³⁾

조선시대에 있어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아버지가 가진 권위는 절대적인 것이다. 전처딸의 부정을 들은 아버지가 전처딸의 손을 자르는 모습은 어쩔 수 없이 전처딸의 손을 자르고 내쫓는 나약한 아버지의 모습이라기 보다는 가족 처벌권을 행사한 단호한 아버지의 모습이다. 이처럼 아버지는 체면을 중히 여기는, 즉 철저한 유교주의 관념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결국 전처딸은 경직된 유교주의 관념과 체면을 중히 여기는 부권에 의해 가혹한 형벌을 받은 것이다. 조선조 사회의 여성에게 있어서 정절의 훼손은 가문과 자신의 존립을 위협하는 것으로 조선조 사회의 여성에 대한 지배는 정절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⁴⁴⁾ 사회적 규제의 대상이 되는 혼외정사라는 행위에 대해서 여성의 경우 ‘덕석몰이’를 당하여 사회의 장에서 추방되거나, 추방되지 않더라도 낙인이 찍혀서 사회적 장내에서 지속적인 멸시의 대상이 되는 등의 물리적·심리적 제재를 받았다.⁴⁵⁾ 즉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난 행위를 했을 때

42) 김재용, 앞의 글,

43) 조현설은 「장화홍련전」이 육체적 인식을 통해 여성에게 작동되는 남성지배의 메타니즘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신화적’ 텍스트라고 보았다. 계모-여성의 악녀만들기와 딸-여성의 원귀만들기를 통해 정작 만들어진 것은 남성지배의 사나운 얼굴에 드리워진 베일이라는 것이다. (조현설, ‘남성지배와 「장화홍련전」의 여성형상’, 민족문화사연구소 제5회 공개학술발표회, 1999,11, pp.33-43.)

44) 조옥라, ‘「가부장제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 여성 연구 1』 청하, 1988. p.188. (박덕순, 앞의 글, p.12. 재인용)

마을에서 추방되거나 사회적 정체성이 박탈되었다. 이렇게 볼 때 손을 잘린 채 쫓겨나는 주인공의 삶은 기존의 사회적 공간 내에서는 죽은 자와 다른 없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다.

전처딸이 쫓겨나거나 또는 죽임을 당하게 된 원인을 전처딸을 미워하는 계모의 사악함 때문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남성중심의 절대적 유교관념에 의하여 시련을 겪게 된 것이고 정절에 대한 무의식적 교육 장치로서의 효과를 노리는 남성 중심 사고가 은폐되어 있는 것이다. '정절'이라는 진술을 중심으로 지배적 권력과 일상적 권력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매 순간, 모든 지점에서 여성의 性の 통제를 유발하는 가부장적 진술의 효과⁴⁶⁾를 보게 된다.

가부장권을 유지하려는 남성중심 사고는 목숨보다 체면을 중시하여 딸에게 傷害를 가한 아버지지만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후처를 내쫓고 다시 새 부인을 얻어 행복하게 산다는 결말에서도 찾을 수 있다. 조선시대에 있어 아버지 또는 남편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 여성은 감히 언급할 수 없으며, 또한 가부장적 사회는 가정에서 일어난 남성의 잘못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한다. 따라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무능한 아버지라 하더라도 가부장제 하에서 아버지는 결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계모를 처벌함에 있어 아버지를 적극적인 계모의 응징자로 탈바꿈 시키는 것도 모든 책임을 계모에게 전가시키고, 악한 계모에 속아서 동조했던 불쌍한 아버지로 자칫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상실할 뻔한 위기에 빠진 아버지를 지켜내려고 하는 가부장의 절대적 권위 의식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전처딸이 아버지로 대변되는 남성에게 의해 처벌을 받았던 것처럼 계모는 전처딸의 아버지, 남편, 아들 즉, 남성에게 의해 처벌을 받는다. 계모의 가혹한 처벌은 남성 중심의 기존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45) 김진명, 『굴레 속의 한국여성』, 집문당, 1993, p.51.

46) 김진명, 앞의 글, p.52.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계모의 처벌은 남성중심의 사고가 투영된 사회의 시선이라 할 수 있다. 가부장제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남성중심의 시각은 전통적인 유교이념을 그대로 실천함으로써 행복한 결말을 맞게 되는 전처딸의 모습에서도 찾을 수 있다. 전통사회의 바람직한 여성상을 전처딸을 통해 권장하고 있는 것이다. <손 없는 색시>는 민중에게 전처소생 딸로 대변되는 인물을 통하여 사회의 유지를 위한 가치 규범을 내세우고 이를 당연한 진리로 인식하게 만들어 당위성을 얻음으로써 기존의 가부장제를 지속시키려 한 것이다.

위에서 본 것처럼 <손 없는 색시>는 가혹하거나 무능한 부권을 옹호하고 유지하려는 남성중사고가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손 없는 색시>의 전승자의 의식을 쫓아가다 보면 실상은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사회적인 제약 때문에 계모는 웅징을 당하고 아버지는 딸과 화해하는 것으로 결말을 짓고 있지만, 잘려진 손이 亡母의 도움으로 하늘로 날라 간다거나 피한방울 흘림이 없다고 하는 대목에서 斷手 사건을 지나치게 경직된 관념에 의해 빚어진 비극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는 전승자의 의식을 보게 된다. 그리고 손이 없는 처녀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계모의 여러번의 모함 편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내쫓지 말라고 당부하는 남편의 모습은 아버지의 모습과는 너무나 상이한 모습으로 전승자는 남편을 통해 관념만 내세우는 무능한 부권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자신이 없는 사이 쫓겨난 아내를 찾기 위해 북·바대 장수나 옛장수와 같은 미천한 행색을 하면서까지 아내를 찾아 나선다는 것은 전승자가 남편을 통하여 바람직한 남자의 모습을 내세우고자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 계모 악녀 형상의 실체

계모의 악행의 주된 원인은 대부분 계모들의 성격적 결함, 가족의 일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모가 겪게되는 심리적인 소외, 어머니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피해 의식, 남편의 애정이 분산되고 있는 여자로서의 시기심, 그리고 사회·경제적인 차별 의식⁴⁷⁾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이처럼 계모가 전처소생과 갈등을 일으키고 전처소생을 해하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서 비롯되었다 할 수 있다. 그런데 가족일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겪게 되는 심리적 소외, 사회·경제적인 차별 의식은 남성중심의 불합리한 사회적 제도에서 기인된 것이다. 결국 계모와 전처소생의 갈등과 대립의 원인은 남성중심의 불합리한 사회적 제도에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남성중심의 불합리한 사회적 제도에서 기인된 사회의 소외의 시선과 사회·경제적인 차별 의식에 초점을 맞추어 계모의 실체를 밝혀 보도록 하겠다.

여인이 초취의 자리가 아닌 재취의 자리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것은 혼인을 통하여 가정을 갖기 위함에 있다. 물론 후처로 들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빈곤에서 벗어나고자 함이다. 그러나 富에 대한 욕심이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후처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냉담하며 부정적이다. 더구나 재혼일 경우에는 더욱 심하다.

여성의 재가 억제는 조선왕조의 건국 이후 주자학에 바탕을 둔 정치이념이 확립되어 가면서 이루어졌다. 고려 말기까지에도 일반적으로 여성의 재혼은 조금도 괴이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조선왕조가 세워지고, 새로운 지배체제가 갖추어지

47) 기존의 견해와는 달리 신연우는 계모를 어머니의 다른 모습으로 보았다. 이것은 자녀를 독립시키려는 어머니에 대한 불신이 자식으로 하여금 친어머니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혐의를 가져오게 하고 같은 어머니의 두 형상이지만 그 다른 어머니 쪽이 옛 이야기에서 계모로 등장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처럼 고약한 계모에의 환상은 착한 어머니 상을 조금도 훼손시키지 않은 채 유지시켜주는 한편 어머니에 대한 노여움이나 노여움에 찬 소망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도록 안전장치의 구실을 한다는 것이다. 계모를 어머니의 변형으로 본 신연우의 논의는 계모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신연우, 앞의 글)

는 태종 때에 이르르면 처음에는 양반의 정치로서 세 번 혼인하는 여성은 「姿女案」에 그 명단을 올려 婦道를 바로잡자는 데서 시작되었다. 「姿女案」의 제도는 고려시대부터 있어왔던 것으로, 양반의 여자로서 부정한 행위를 하였거나, 세 번 이상 개가한 여성의 소행을 기록하는 대장이었다. 일단 이 「姿女案」에 기록되면 그 자손의 관직 등용이 크게 제약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따라서 처음에는 태종 때의 「姿女案」도 고려시대의 제도에 의거하였을 뿐이었다. 태종 때의 건의에 나타나는 姿女의 적용 범위도 아주 제한되어 있었다. 우선 첫째 신분적으로 양반의 정치로 못박고 있다. 그러므로 정치가 아닌 첩이라면 무관한 셈이 된다. 둘째로 양반의 정치라 할 지라도 두 번까지의 개가는 해당이 되지 않았다. 다만 세 번째부터가 문제된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 조선왕조의 양반 사회 내부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여성은 극소수였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왕조의 근본법전인 <경국대전> 권3 禮典 諸科條에, 「罪를 범하여 영구히 임용하지 않게 된 자, 贓吏의 子, 재가하였거나 실행한 부녀의 자손 및 庶孽子孫은 문·무과, 생원·진사試에 응시하지 못한다.」는 조문이 포함되면서 여성의 재혼 문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비록 과부재가 그 자체를 법으로 금한 것은 아니나, 재가한 여성의 소생이 벼슬할 수 있는 길을 봉쇄함으로써 양반 집안에서는 과부의 재가를 꺼리게 되고 이것이 점차 풍속화되어 갔던 것이다. 즉, 양반 계층의 여성은 일생에 단 한번 밖에 혼인할 수 없고, 설사 아무리 일찍이 남편을 사별하여 청상과부가 된다 하더라도 수절하도록 풍속이 바뀌어 갔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양반 사회의 수절 풍속이 점차 일반 민간에도 영향을 주어 한국사회 전체에 걸쳐 풍속화하여 가게 된 것이다. 이렇듯 조선의 지배질서가 확립되면서 여성의 재가는 크게 억제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여성의 재가 문제는 조선왕조 말기 고종 31년의 갑오경장 때에, 부녀의 재가는 귀천을 막론하고 그 자유에 맡긴다는 결정이 내릴 때까지는 제도적으로 억제

되어 왔다. 48)

이렇듯 전통사회에서 여자의 재혼은 어머니에 대한 재혼의 죄악시 때문에 사회적 신분의 저하를 초래하였고, 여성의 재가 억제가 조선왕조 말기에 풀렸지만 여자의 재혼에 대한 죄악시는 얼마전까지도 그 잔재가 남아 있었다. 남편이 사망하자 재가한 딸이 친정에 출입이 금지되고 딸의 재가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 망신 자기가 시키는 것'이라고 죽을 때까지도 안 볼 것이며 임종시에도 딸을 안 보게 될 것이라고 진술하는 어머니의 태도에서, 그리고 딸의 재혼소식이 마을에 알려지자 마을에서 사람 취급 못 받는다고 농토를 팔고 마을을 떠나는 아버지와 친정은 물론 마을에도 출입이 금지된 상태로 몇 십 년을 살다가 웃어른들이 모두 사망한 이후에야 비로소 마을을 방문하는 여성의 태도에서⁴⁹⁾ 여성의 재가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선이 실제로 그들의 삶을 얼마나 억압하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초혼이라 하여도 신분이 낮은 경우에는 남편이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후처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후처를 비난하였다.⁵⁰⁾ 이처럼 후처의 자리는 전처보다 열등하게 생각되고, 심지어 첩과 동일하게 취급하려는 경향마저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소외의 시선, 일상의 공간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는 존재의 위기감은 계모로 하여금 살아남기 위한 투쟁을 하게 만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계모의 학대는 단순한 미움이나 시기로 해석할 수는 없는 문제이다. 자신을 외부인으로 취급하는 사회적인 소외감, 존재의 위기감이 계모를 그렇게 만들 것이다. 계모가 느끼는 존재의 위기감은 전처딸이 혼인을 앞 둔 과년한 나이에 극대화되어 나타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것을 재산상속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계모형 소설에서 표면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제시되어 있으나 계모가 혼인을

48) 하현강, 『한국여성사 고대-조선시대』, 이화여대출판부, 1993, pp.417-440

49) 김진명, 앞의 글, pp.41-42.

50) 김진명, 앞의 글, p.59.

앞둔 전실자식을 제거하려는 결정적인 동기로 작용한 것은 결국 재산상속의 문제였다. 즉 그 기저에는 재산에 대한 욕망이 깔려 있었던 것이다.

후처의 소생들은 상속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정실의 자식과는 다르게 부당한 대우를 받기 때문에 전처딸에게 재산이 상속될 시 자신의 소생에게 돌아갈 재산은 남지 않을 수도 있다.嫡庶의 구별을 중요시하던 조선왕조 사회에서, 재산의 상속에 있어서도 신분의 차별에 주목하였음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므로 嫡庶의 신분 차이에 따라 상속의 비율에 큰 차이가 있었다. 적실에 자식은 없되 여식이 있고 良妾子가 承重子가 될 경우 承重子에게 2분을 加하라 하였다. 이 때 賤妾子女의 분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良妾子가 承重하면 2분을 가산하라 한 것은 良妾承重子와 적녀 사이의 상속분이 3:6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良妾承重子, 적녀 그리고 良妾衆子女 3者の 상속분을 백분율로 환산하면 각기 30%, 60%, 10%가 된다.⁵¹⁾ 그리고 자녀의 모계 신분에 따라 재산 상속에 차이는 있었으나, 동일모계, 가령 다 같은 적실자녀라면 아들과 딸이라는 성별에는 관계없이 재산이 고루 상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전기에 있어서의 재산상의 특징은 여성은 혼인을 하더라도 자기 개인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혼인한 여성이 사망할 경우, 그 재산의 상속에 있어서는 만약 자녀를 두고 그 적모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자기 자녀에게 균분상속하고 承重子에게 더 지급하는 것은 부계의 재산 상속과 동일하였으나, 특이 한 것은 첩자녀에게는 재산 상속의 혜택이 없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자기 소생의 자녀는 없고 첩자녀만 있는 적모의 노비는 부계의 경우와 같이 良妾子女에게는 재산의 7분의 1을, 賤妾子女에게는 10분의 1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모두 적모의 본족에게 돌렸으며, 본족이 없는 경우에는 屬公하기로 되어 있었다. 다음에 아들이 없고 딸만 있는 적모의 노비는 良妾子가 承重子일 때에는 딸에게 6, 承重子인 良妾子에게는 1의 비율로, 천첩 소생의 承重子일

51) 이관규, 『한국가족의 사적 연구』, 일지사, 1977, p.356.

때에는 딸에게 9, 賤妾承重子에게 1의 비율로 각각 상속되었다. 그러나 적모에게 아무리 노비가 많다 하더라도 妾承重子가 상속되는 노비는 3명을 넘을 수 없도록 법적 조치가 취해지고 있었다. 妾承重子가 재산상속을 받는 이유는 적모의 제사를 받들기 때문이다. 노비는 재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다른 재산도 노비의 예에 따랐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처럼 조선왕조 초기에는 여성의 재산권과 상속권이 인정되고 있었다. 그것은 우리 나라 고유의 혼속인 「男歸女第」, 즉 혼인을 하면 남편이 아내의 집에 기거하는 풍속으로 여성측의 경제적 조건이 크게 고려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조선왕조 초기의 여성들은 재산상속상에 있어서는 그 지위가 현저하게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선왕조 중기이후는 여자의 재산상속 몫이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半親迎, 즉 男歸女第와 親迎을 절충한 혼속이 점차 일반화되면서 여성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는데 연유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조선 후기에 오면 차츰 재산의 자녀균분상속은 없어지고, 그 대신 承重子가 재산의 대부분을 상속하는 경향을 띠게 된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여성의 재산권과 상속권도 조선 초기의 성격에 비하여 큰 변화를 보인다. 피상속인인 호주에게 남자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는, 그 집에 있는 여자가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하되, 다만 양자의 선정 등으로 남자 상속인이 나타날 때까지의 일시적인 상속이었을 뿐이다. 그리고 여자의 상속순위도 祖母·母·妻의 순서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여자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요건은 사망한 호주의 家籍에 있어야 하였다. 만약 혼인하여 남편의 가정에 있는 경우는 상속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조선 전기에는 여자의 혼인 여부가 상속의 자격을 제한하지 않았다. 조선 전기에는 출가한 딸도 친가의 재산을 상속 받았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처럼 조선 전기와 후기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조선은 시대가 내려옴에 따라 재산상속에 있어서의 여성의 지위가 크게 변모하여 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손 없는 색시>에서 계모가 전처딸을 쫓아내려 한 동기를 재산 상속의 문제로만 볼 수는 없다.⁵³⁾ 재산의 상속이 있기 전에 출가하여 남편의 가정에 올라 있다면 상속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전처딸을 출가외인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만인 것을 굳이 내쫓으려 한 이유는 무엇인가. 재산상속의 문제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즉, 계모가 전처딸을 쫓아내려고 한 것은 단순히 재산에 대한 욕심 때문이 아니라 전처딸의 혼인에 치러지는 비용으로 가정 경제에 위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혼인 대상자가 결정되면 納采·問名·納吉·納徵·請期·親迎의 혼인의례를 갖추어 혼인 관계가 성립되게 마련이었다. 물론 혼인의례를 갖춘다는 것은 여성이 정실이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혼인의 의식이 끝나면 신혼 부부는 신방에 들고 3일 밤을 같이 지내게 된다. 첫날밤을 보내고, 다음날 신랑의 친족이나 친구들이 신부집에 몰려오면 신부집에서는 음식을 차려서 이들을 대접한다. 이 잔치를 「覽寢宴」이라 불렀다. 그러나 신혼의 여흥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신랑이 신부집에 머물고 있는 3일 동안 계속된다. 신랑의 친구들이 속칭 「신랑단다」고 하여 신랑을 붙잡아 발을 묶어 거꾸로 매달아놓고는 발바닥을 막대기로 치면서 온갖 말로 희롱을 하며 괴롭히면, 신부집에서는 음식을 차려내어 친구들을 대접한다. 이를 「東床禮」라고 불렀다.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는 이와 같은 풍속은 그 유래가 조선왕조 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52) 하현강, 『한국여성사 고대-조선시대』, 앞의 글, pp.486-492.

53) 계모형 소설은 <장화홍련전>의 경우 18세기에 소설화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사회적 배경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상속의 문제로 보는 것이 큰 무리가 없으며 더욱이 소설에서도 양반 집안의 재산상속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異論 여지가 없지만, <손 없는 색시>의 경우는 최초의 채록시기가 1924년으로 되어있으며, 민중의 의식이 반영되어 있는 설화이기 때문에 조선후기 이후의 사회적 배경을 반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는 아주 오랜 것이었다.⁵⁴⁾ 이처럼 혼인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었던 것이다. 특히 딸이 많은 집안은 혼인 비용으로 재산이 탕진되어 도둑이 들어와도 가져갈 것이 없어진다는 뜻으로, 「딸이 셋이면 문 열어놓고 잔다」는 속담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그 어려운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후처로 들어가는 여인은 상대방의 재산을 보고 가는 것인데 전처딸의 혼인으로 많은 비용이 소비되어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심리적인 소외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압박까지 받게 되므로 후처로 들어가는 목적은 완전히 상실되는 것이다. 물론 전처딸의 혼인 전에 재산상속이 이루어지거나, 혼인시에 이루어진다면 문제는 달라질 것이다. 그렇다면 집안에서 쫓아내어 재산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후처라는 자리는 불안정한 자리인 것이다. 후처는 자녀에 대한 상속을 결정할 수 있는 강력한 지위가 아버지에게 있었고, 자식에 대한 처벌권 또한 아버지에게 있었기 때문에 전처딸의 부정을 모함하여 재산이 상속되는 것과 혼수비용으로 집안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고자 한 것이다. 결국 후처가 전처소생을 쫓아내고자 했던 원인은 가족의 구성원으로 대접을 받지 못한 소외감, 그리고 재산의 상속과 혼수비용에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처딸의 행복한 삶을 방해하는 또 한번의 모함을 꾸민다. 계모는 자신의 계획대로 전처딸을 쫓아냈으나 전처딸은 부잣집의 도령을 만나 시댁 식구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산다. 거기에다 잘생긴 아들까지 낳는다. 계모가 전처딸을 쫓아낸 후 오히려 집안의 형편은 어려워진데 반해 전처딸은 잘 살기 때문에 계모는 전처딸의 행복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또 한번의 모략을 꾸민다. 그러나 단순히 행복을 방해하기 위해 모함을 꾸몄다기 보다는 자신이 낙태모함을 꾸며 전처딸을 쫓아냈던 사실이 들통이 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서 편지조작을 한 것이라 생

54) 하현강, 『한국여성사 고대-조선시대』, 앞의 글, pp.428-431.

각된다. 전처딸이 가문에 대를 이를 잘생긴 후손을 낳았고 남편이 과거급제 하여 돌아온다면 전처딸의 시대에서의 위치는 더욱 확고해 지는 것이며, 따라서 친정에서 계모에 의해 누명을 받은 사실을 그냥 묵과하고 지나칠리는 만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계모의 이러한 모략은 오히려 전처딸에게 행운으로 작용하였다. 첫 번째 모략으로 손을 잃고 쫓겨난 전처딸은 부잣집 총각을 만나 혼인하게 되었고, 두 번째 모략으로 혼인 후에도 재생되지 않았던 잃어버린 손을 찾게 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손 없는 색시>에서 후처라는 위치에 서 있던 여성은 주어진 사회적 지위나 인식을 거부하고 자신의 생존논리에 의해 삶을 피하려 했던 것이고, 이런 후처에 의해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전처딸은 두번에 걸쳐 고행을 겪게 되었지만 그 고행으로 자신의 존재에 대해 비로소 눈을 뜨고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고 자기 자신에 자신을 갖게 된 것이다. 즉 이러한 존재론적 변화에 의해 가족과 재결합하게 되고 자신의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찾게 된 것이다. 따라서 <손 없는 색시>는 단순히 계모-악, 전처딸-선이라는 도식화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며, 계모의 학대, 그로 인한 시련과 극복의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계모는 왜 전처딸과 갈등을 일으키게 된 것인가, 그리고 전처딸이 겪은 시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IV. 타 유형 및 타국 자료와의 비교

1. <손 없는 색시>譚과 타 유형과의 비교

<손 없는 색시>는 한국 고전 서사문학에서 하나의 큰 작품군을 이루고 있는 '계모설화'의 하나이다. 따라서 '계모설화'의 전체적 맥락 속에 놓고 살펴볼 때 <손 없는 색시>의 문학사적 위상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손 없는 색시>는 '계모설화' 가운데 “악한 계모설화”의 하위 유형인 “신체적 가해를 하는 계모형”으로 분류되거나 “계모 행동 유형”의 경우 “모함”과 “가해”에 “전실자식 대응 양상”의 경우 “수난극복”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분류는 본고에서 논하고자 하는 연구 방향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필자는 <손 없는 색시>와 다른 '계모설화'의 비교 논의를 위하여 '계모설화' 가운데 계모와 전처딸 사이의 갈등을 소재로 하는 이야기를 연구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그것은 <손 없는 색시>가 계모의 영입에서 빚어진 전처딸의 고난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계모의 영입으로 인해 전처딸이 겪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유형들이 서로 유사한 내용과 구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계모와 전처딸 사이의 갈등을 소재로 하는 대표적인 이야기는 <장화홍련>과 <콩쥐팍쥐>라 할 수 있다. 이 두 설화는 소설로 정착되어 폭 넓게 읽히고 있다. <장화홍련전>은 18세기 중반 무렵에 설화에서 소설로 전환된 것으로, <콩쥐팍쥐전>은 20세기 초에 처음 문자화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⁵⁵⁾

18세기 중반은 사회의 변동기로서 기존 가치에 대한 도전이 왕성했던 시기인데, 계모의 악행이 단순한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질서의 유지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대두되면서 설화 수준의 이야기가 소설로

55) 이원수, '〈콩쥐팍쥐〉연구의 경과와 전망', 『어문학 61집』, 한국어문학회, 1997.

전환되었으며, 후기 이본에 오면서 <장화홍련전>은 가문 의식의 강화를 꾀하였고 복수의 서술 시점을 채택하였으며, 계모의 욕망을 단순히 기질적인 산물로 보지 않고 사회경제사적인 관점에서 파악하려 했다.⁵⁶⁾ 이러한 <장화홍련전>을 철산 실화를 근거로 하여 소설화된 것으로 본 논의가 있다. 김태준은 『增補 朝鮮小說史』에서 <장화홍련전>의 형성과정을 논하는 자리에서 ‘이 소설은 평북 철산에서 발생한 계모의 실담에 「靈應傳」이나 「竇娥鬼」 같은데서 볼 수 있는 귀신의 公廳出現의 설화와 靑鳥의 길 안내 등 많은 전설에 府會하여 일운 것이니…」라고 언급하였고, 박성익은 「韓國古代小說論과 史」에서 ‘실제로 전하는 사실을 소재로 하여 저자의 창의를 넣어서 윤색하고 허구적인 수법으로 소설화한 것이라 보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김기현은 이러한 견해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그는 「장화홍련전의 형성」이라는 논문에서 ‘본전은 신데렐라형 설화와 아랑형 설화와의 二元的 영향하에서 형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⁵⁷⁾

이 밖에 계모와 전처소생 자녀간의 알력과 비극을 주제로 한 소설 작품으로 <정을선전>, <김인향전>, <황월선전>, <김취경전>, <어룡전>, <장풍원전> 등이 있다. 계모형 소설은 조선조의 유교적 이데올로기의 관념적 실천을 내세우던 초기의 사회적 분위기가 이완되면서 파생하게 된, 가족내의 모순된 관계 및 부부형태의 변형양상을 사실적으로 다룬 작품으로 작품구조와 당대의 사회구조가 어느 정도 상동성을 보이고 있는 점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였다는 데에 그 성과가 있다.⁵⁸⁾

지금까지 계모형 소설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계모설화

56) 김재용, 앞의 글.

57) 김태준, 「增補 朝鮮小說史」, 학예사, 1939, p183. / 박성익, 「韓國古代小說論과 史」, 일신사, 1973, p.365. / 김기현, 「장화홍련전의 형성」, 『한국문학논고』, 일조각, 1972. p.62. (우쾌재, 앞의 글, p.4. 재인용)

58) 박태상, 앞의 글.

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미흡하다. <장화홍련>, <콩쥐팍쥐>도 일찍부터 논자들의 주목을 받았지만 설화에 대한 연구보다는 소설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따라서 필자는 구전으로 전해지는 계모와 전처딸의 갈등을 소재로 하는 이야기 가운데 가장 풍부한 모티프를 가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설화라 할 수 있는 <장화홍련>, <콩쥐팍쥐>와 많은 각편들이 전해지고 있는 <황대감의 딸> 유형을 통해 <손 없는 색시>와 비교하여 그 의의를 밝히도록 하겠다.

위의 이야기들은 모두 일찍이 어머니를 여읜다는 부재를 전제로 하며 이에 따르는 계모와 전처 딸과의 갈등 이야기가 주축을 이룬다. '계모'는 전처딸의 시련을 가져오고 행복을 방해하는 인물로 계모와 전처딸의 갈등은 후처의 영입 이전에 이미 예견되고 있었다.

재혼을 하는데, 이 정승이 가마이 생각을 하이, 딸은 과연하재,
옛날에는 참 계모가 들어오면 계모 행시(행세)를 하재 이래서 그
딸을 인자 감챌는 기라. 저가부지가 떡. 정승이, 인자 딸을, 그 큰
딸을 떡 감차놓고 그래 장가를 들었어. (대계 7-14, “계모에게 쫓겨
난 손 없는 색시)

계모의 영입은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경제적, 심리적 갈등으로 발전된다. 계모는 자신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처딸을 쫓아내기 위한 음모를 꾸민다. <장화홍련>, <황대감의 딸>, <손 없는 색시>는 모두 껍질 벗긴 쥐를 넣어 낙태한 형상을 유도하여 부정한 여자로 모함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때 계모의 음모로 전처딸은 不貞한 여자로 몰려 집안에서 쫓겨나거나, 딸려 보내진 사람(계모의 자식이나 심복)에 의해 자살이 유도된다. <장화홍련>은 연못에 투신자살하게 되는 것으로, <황대감의 딸>은 같은 상황이었지만 구원되

어 정혼자를 찾아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두 이야기는 전처딸이 집안 망신을 시켰다 하여 물에 빠뜨려 죽이려 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손 없는 색시> 5편과 “전처딸을 몹시한 계모의 최후”(7-10)⁵⁹⁾, “숯 굽는 총각과 결혼한 처녀”(8-11)⁶⁰⁾에서만 손을 절단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장화홍련>과 <황대감의 딸> 이야기가 계모의 전처딸에 대한 모함이 살해로 적극화되는 반면 <손 없는 색시>는 손의 절단 후 내쫓기는 것으로 처리되는데, 이것은 전처딸의 정상적인 삶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라 할 수 있다. 전처딸에게 있어 손을 잘린 채 내쫓긴다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일 수 있다. 손이 절단된 전처딸은 앞으로 정상적인 삶을 영위 할 수 없으며, 더욱이 거리로 내쫓김으로써 고통은 가중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斷手는 존재론적 차원에서의 죽음을 의미하며, 심층적으로는 불완전한 존재의 죽음 즉, 정신적인 차원에서의 죽음을 의미한다 할 수 있다.

59) “전처딸을 몹시한 계모의 최후”에서는 계모가 동자를 죽였는데도 전처딸이 미나리를 베어 돌아오자, 계모는 전처딸의 손목을 잘라 내쫓아 버린다. 전처딸은 잘린 손목을 주어 들고 새파란 연못을 들여다보며 울고 있는데, 동자가 나타나 부부가 된다. 이 이야기의 서두는 <콩쥐팍쥐> 이야기를, 후반부는 ‘겨울에 맞지 않는 난제 부과하기’의 구조를 띠고 있다. ‘계모설화’의 여러 모티프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미루어 구연자가 자신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사건의 흐름과는 상관없이 꿰어 맞추는 과정에서 생긴 결과로 보인다.

60) “숯 굽는 총각과 결혼한 처녀”는 ‘계모가 쥐 낙태 모함을 꾸며, 손이 절단된 채 쫓겨난다. 이때 계모의 아들이 죽이지 말고 한쪽 손을 끊으라고 당부하여 손을 자른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쫓겨난 전처딸이 숯 굽는 총각집에 머물게 되고 숯굴의 이맛돌이 황금인 것을 발견하여 총각에게 팔아오라고 하여 부자가 된다. 그 숯 굽던 총각은 과거를 치르기 위해 서울로 떠나고 귀가하지 않는 남편을 마중하러 나간 전처딸은 아이가 웅달샘에 빠져 아이를 구하려다 손이 재생된다. 그때 남편은 과거 급제하여 귀가하고 전처딸은 도문 잔치를 열어 거지가 된 아버지와 상봉하고 계모는 처벌한 후 잘 산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설화는 ‘계모의 모함에 의한 단수와 축출→숯 굽는 곳에서 황금발견과 혼인→샘에서 손의 재생→잔치를 열어 거지가 된 아버지와 상봉’의 구조로 <손 없는 색시>와 <여인발복설화>과 뒤섞여 있다.

이러한 불완전한 존재의 죽음은 혼인으로 새로운 사회에 편입되면서 완전한 존재로 전환된다. 그런데 <손 없는 색시>는 혼인으로 시련이 모두 극복되지 못하고 재차 시련을 겪었다. 이러한 혼인 후의 시련은 <콩쥐팍쥐>에서도 발견된다. <콩쥐팍쥐>에서 콩쥐는 혼인 전에 계모로부터 불가능에 가까운 힘든 노동을 부과 받으나 신이한 존재의 도움으로 모두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해 낸다. 콩쥐에게 부과된 난제는 미혼이라는 불완전한 존재에서 벗어나 사회적 구성원으로 완전한 존재가 되기 위해 치러야 할 시험이라 할 수 있으며, 콩쥐는 이러한 시험을 모두 통과하였기 때문에 귀족과 혼인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콩쥐팍쥐>는 혼인으로 시련이 종결되는 못하고 또 한번의 시련을 겪게 된다. 콩쥐는 선비의 당부를 잊고 팍쥐의 꼬임에 넘어가 물에 빠져 죽게 된다. 콩쥐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은 성인이 된 후 그녀를 시험하기 위해 주어졌던 금기를 지키지 못했기에 받게된 고난인 것이다. 그런데 혼인 후 계모의 음모에 의한 시련이 <콩쥐팍쥐>에서는 콩쥐가 죽음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손 없는 색시>에서는 시댁에서 아이와 함께 쫓겨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다르다.

결혼이 서사상에서 갖는 기능은 일정하지 않다. <장화홍련>의 결혼은 서사적 갈등이 완전히 해결된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행복한 결말을 장식하는 의미를 갖는다. <장화홍련>은 결혼이 모든 갈등이 종식된 후에 나타나는 것으로 장식적이고 축제적인 의미가 크다. 다시 말해 행복한 결말을 위한 축제적 사건으로서 결혼이 등장하는 것이다. <황대감의 딸>에서는 죽음으로 내몰린 전처딸은 죽음을 모면하고 정혼자의 집으로 찾아가 신랑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학문과 덕행이 훌륭하여 예사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시킨 다음 자신의 신분을 밝힘으로써 혼인을 성취한다. 남편이 과거에 급제하여 양주 목사가 된 후 남편과 함께 친정집에 들러 글을 써 놓아 부녀가 상봉하게 되고, 친부는 계모를 불 태워 죽인 후 딸의 효도를 받으며 잘 살다가 죽는다. 이렇

게 볼 때 <황대감의 딸>에서는 혼인은 상황을 반전시키는 계기가 된다. <황대감의 딸>에서 혼인이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는데 깨지지 않은 이유는 주인공의 적극적인 시련 극복의 태도에서 찾을 수 있다. 정혼자를 고생 끝에 찾아가 학문과 덕으로 시댁 식구를 감격시켰고, 신분이 탄로난 후 자신의 처지를 밝히고 이루어진 혼인이기 때문에 계모의 음모는 이미 시댁 식구에게는 드러난 셈이며, 따라서 더 이상 시련은 생기지 않는 것이다. 반면에 <콩쥐팍쥐>와 <손 없는 색시>의 혼인은 계모와의 갈등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혼인이며, 혼인 전과 마찬가지로 혼인 후에도 적극적인 삶의 태도로 변화하지 못했기에 발생한 시련이라 할 수 있다. 이들에게 있어 혼인은 새로운 국면의 갈등을 가져오는 차원으로 발전되며, 고난을 예비하며 갈등의 중간에서 그 갈등을 심화시켜 보여 주는 사건으로 등장한다.⁶¹⁾

<장화홍련>, <콩쥐팍쥐>에서 장화·홍련과 콩쥐의 죽음이 물과 연결되어 있고, 콩쥐의 환생은 연꽃과 관련을 맺고 있다. 인간의 생명이 갑작스런 죽음에 의하여 중단되어버리는 경우 생명은 초목, 꽃, 열매와 같은 다른 형태를 취하고 삶을 연장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인간과 초목 사이의 유대, 인간과 초목 사이의 연속적 순환으로 이해되는 유대이며, 인간의 생명은 완전히 소멸되어버리지 않는 한 창조나 표현의 가능성을 모두 소진시켜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차원 사이의 생명의 순환은 많은 전설과 설화 가운데 보존되어 있다. 인도의 편자브 지방에서 채집된 설화에서는 살해된 아내가 백합으로 변형된다. 가짜 왕녀가 그 백합을 작게 자르니까 그 백합에서 박하가 나오고, 거기에서 아름다운 덩굴풀이 자란다. 데칸 지방에서는 욕심 많은 여왕의 이야기가 있다. 어느 여왕이 소녀를 못에 빠뜨려 죽였는데 이 못에서 해바라기가 솟아나, 그것을 태워버리니 그 재에서 망고가 자라났다. 토스카나

61) 김재용, 앞의 논문, p.41.

의 설화에서는 여주인공이 '거대한 뱀장어'로 변형하고, 그 뱀장어는 살해되어 들장미 화단에 던져진다. 여기에서 그녀는 '놀랄 만큼 큰' 들장미로 변하고, 그것은 진귀한 것으로서 왕자에게 헌상된다 그랬더니 들장미로부터 "잠깐! 나를 때리지 마세요!"라는 목소리가 들려와 왕자가 칼로 그 들장미를 잘라보니 아름다운 소녀가 안온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난다.⁶²⁾

연꽃은 물에 피는 식물로 콩쥐가 연꽃에서 환생되었다는 것은 <손 없는 색시>에서 손의 재생이 물에 의해 회복되는 것과 같은 성격이라 할 수 있다. 둘 다 물의 생생력에 의한 회생이기 때문이다. 재생은 비로소 성인으로서 완전한 제자리를 찾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죽음→재생의 구조는 성인식의 통과 의례 모티프의 중요한 요소로 물과 연꽃은 통과의례로써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위에서 본 것처럼 '계모설화'에서 전처딸이 겪는 시련과 시련극복의 과정은 몇 가지 유형으로 추려진다. 우선 시련 즉 분리의 결과에 따라 서사단락의 차별성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축출된 인물이 죽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집에서 추방되는 것이다. 분리가 죽음으로 이루어진 이야기는 원귀출현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환생되어 행복을 누리게 된다. 분리가 축출로 끝나는 경우는 주인공이 집에서 축출된 후 죽음의 직전에서 구원을 받고 혼담이 있었던 남자의 집에서 은둔생활을 거쳐 혼인 후 남편 또는 아버지를 통해 계모를 처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손 없는 색시>의 경우는 단순히 추방만 되는 것이 아니라 손이 잘린 후 추방된다는 점에서 다른 '계모설화'와 차별된다.

손의 절단과 재생이 작품의 내적 구조에서 갖는 의미는 '죽음'→'재생'의 구조로 미성숙에서 성숙된 자아로의 전환에의 지향을 의미한다. 즉 새로운 사회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겪는 고통으로 통과의례적 기능을 보여주는

62) 엘리아데, 앞의 글, pp.400-404.

것으로 볼 수 있다.

<콩쥐팍쥐>는 '계모 영입→계모의 학대→혼인→계모에 의한 이별→재회→계모 처벌'의 플롯을 <황대감의 딸>은 '계모 영입→계모의 낙태 모함→축출→은둔→혼인→남편의 과거급제→계모 처벌→복귀'의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는 <손 없는 색시>의 통과례적 구조와 유사하다. 통과례의는 삶의 새 고비, 삶의 새 관문, 인생의 새 문턱에서 치르는 제의를 의미한다. 성년이 되는 것, 결혼하는 것, 일정한 사회적 소임을 맡는 것, 죽음 등은 삶의 문턱이고 고비이다.⁶³⁾ 결국 <콩쥐팍쥐>와 <황대감의 딸>은 여성의 이니시에이션을 보여주는 설화라 할 수 있으며, <장화홍련>도 '계모의 영입→계모의 낙태 모함→죽음→신원→계모 처벌→재생→혼인'의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이처럼 계모와 전처딸의 갈등을 보여주는 설화들은 <손 없는 색시>와 마찬가지로 한 여인이 여인으로서의 자기의 세계를 성취하는 과정의 실상을 이니시에이션 과정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완벽한 통과례의적 양상을 띤 설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계모와 전처딸의 갈등을 보여주는 설화들은 대부분 성년식을 보여주는 통과례의의 절차를 그 구조적 기저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성년식에서 중요한 순간은 어린이 세계의 죽음과 새로운 어른으로서의 재생을 상징화한 의식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그 죽음은 세속생활의 종말을 의미한다.⁶⁴⁾ 결국 고난과 시련은 성인이 되기 위한 필수 과정인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것처럼 <손 없는 색시>의 경우는 분리의 과정이 두 번 일어난다. 처음에 주인공은 계모라는 이질적인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공동체에서 분리된 후 구원자를 만나 혼인하여 사회에 통합되었다. 하지만 혼인을 통한 사회와의 통합은 일시적인 통합으로 다시 계모에 음모에 의해 공동체에서 재차 분리된다. 따라서 혼인을 통한 통합과 분리는 전환적인 성격을 갖는

63) 김열규, 『한국의 신화』, 일조각, 1991, p.68.

64) 오출세, 앞의 논문, p.20.

다고 할 수 있다. 처음에 분리된 주인공이 구원자를 만나 혼인을 통해 사회와 통합했던 것처럼 두 번째의 분리에서도 구원자의 탐색에 의하여 가정으로 복귀하여 사회와 재통합한다. 주인공은 복귀로 자신의 무고함을 밝혀내고 계모를 응징함으로써 모든 갈등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완전한 통합의 의미를 갖는다.

2. <손 없는 색시>譚과 독일민담 “손 없는 처녀”와의 비교

한국민담 <손 없는 색시>와 같은 유형의 설화는 범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유형이 전파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자연발생적인 것인지 지금 현재로서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독일민담인 “손 없는 처녀”는 한국에 번역 소개되었으나 한국의 전래민담과 독일의 대표적 민담집인 <Grimm 동화>는 역사적으로 보아 한독 양국의 문화적 교류가 근세 이전에는 전무하였기에 상호 영향을 주고받을 입장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양국의 전래민담은 자연히 교섭사적 차원이나 영향관계의 고찰과는 거리가 먼 단순한 소개의 정도에서 그 관계가 비롯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학계에 보고된 바로는 1920년 동산 오천석에 의해 “學生界”에 그림동화 한 편이 소개된 것을 비롯하여, 편편이 소개되었으나 그림동화가 이 땅에 移入되는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는 “손 없는 색시”(Das Mädchen ohne hände)의 번역은 1965년에 김성도에 의해 번역된 <그림동화선집>에서 처음으로 발견되며,⁶⁵⁾ 국제적 민담번호인 31번을 명기하여 기록한 이 민담의 제목은 “두 손 없는 처녀”로 되어있다.⁶⁶⁾ 한국민담 <손 없는 색시>는 1971년 임석재의 <옛날 이야기선집> 3권에 “손을 잘린 처녀”라는 제목으로 비로소 문자화되었고, 1980년대에 와

65) 주종연, 『한독민담비교연구』, 집문당, 2000, p.230.

66) 주종연, ‘韓國의 傳來民譚과 독일 Grimm童話와의 比較研究 I: “손 없는 색시”(Das Mädchen ohne hände)’, 앞의 글, p.24.

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실시한 전국 구비문학 자료 조사 결과 3편이 더 채록 보고되었다. 그리고 1987년에서 1993년에 걸쳐 간행된 <한국구전설화> I 권과 VIII권에 각각 한편씩 채록되어 있다. <손 없는 색시>가 처음 문자화되어 소개된 것은 1971년이고, 임석재가 채취한 자료들이 1987년에 와서야 비로소 문자화되었지만, 이미 1924년에 전북 정읍군에서 자료가 채취되었으며 1937년에서 1938년에 걸쳐 평안북도 지역에서 3편이 더 추가로 채취된 것으로 그 채취된 시기는 상당히 앞서 있다. 이렇게 본다면 독일민담 “손 없는 처녀”가 이입되어 전파되기 41년 전부터 이미 우리 나라에 <손 없는 색시> 유형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호 영향 또는 이입이란 측면에서 보기는 어렵다.

<손 없는 색시>에 관한 韓獨 양국의 전래민담의 비교연구는 조희웅의 “손 없는 색시攷”에서 구체성을 띠게 된다. 그는 이 논고에서 <손 없는 색시> 유형에 관한 歐美쪽 전승자료의 변모를 史的으로 추적하고, 東洋에서는 이웃 나라 일본에서의 이야기 분포와 변형을 열거하며 근자 우리 나라에서 발굴된 몇 편의 설화와의 대비를 통한 세계성을 추적하였다.⁶⁷⁾

조희웅에 이어 주종연은 “손 없는 색시”의 여러 유형들을 수합 비교 검토하고 거기서 얻은 성과를 토대로 그림동화집에 채록된 “Das Mädchen ohne hände”와 상호 대비하였다. 그는 이 작업이 동서민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아울러 부감할 한 계기가 될 수 있을뿐더러 민담의 범 세계성이나 보편성을 실증적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그 의의가 크다고 보았다.

필자는 그림 형제의 채록본을 모델로 삼아 <손 없는 색시>와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상호 비교를 통해 동서양 설화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검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설화의 제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작업은 궁극적으로 우리 설화 특성을 보다

67) 조희웅, ‘「손 없는 색시」(AT 706)’, 앞의 글.

객관적으로 구명할뿐더러 세계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는, 다시말해 한국설화의 세계성의 획득이란 면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다.

그림동화의 제 31화 “손 없는 아가씨”는 다음과 같은 줄거리로 되어 있다.

“어떤 가난한 방앗간 주인이 나무하러 갔다가 방앗간 뒤에 서 있는 걸 주면 부자가 되게 하여 준다는 악마의 말을 듣고 방앗간 뒤에 있는 사과나무를 말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악마와 약속을 하였다. 그러나 집에 와 보니 방앗간 뒤에 서 있던 건 딸이었다. 약속대로 3년 후에 악마가 찾아와서 처녀를 데려가려 하였으나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기 때문에, 눈물에 깨끗이 씻겨져서 데려가지 못하여 처녀의 손목을 자르지 않으면 아버지를 끌고 가겠다고 하였다.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악마의 말대로 딸의 손을 자르려 하고 딸은 뜻대로 하라고 한다. 그러나 잘린 팔이 눈물로 인해 너무 깨끗하였기 때문에 악마는 데려가지 못하였다. 처녀는 스스로 집을 떠나 방황하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왕궁의 정원으로 들어가 배를 따먹고 숲속에 숨는다. 배가 부족한 것을 안 임금도 정원사의 이야기를 듣고 밤에 숨어서 지켜보다가 손 없는 처녀를 발견하고 궁 안으로 데려가 왕비로 삼았다. 1년 후에 임금은 전쟁터로 나가게 되어 모후에게 왕비를 부탁하였다. 왕비는 옥동자를 낳고 모후가 이 소식을 왕에게 전하기 위해 편지를 써서 사신을 보냈으나 사신이 도중에 시냇가에서 잠든 사이 편지 내용을 악마가 바꿔 놓았다. 임금은 못난 병신 아이를 낳았어도 귀환 한 때까지 왕비를 돌봐달라는 답장을 보내나 귀로에 또 사신이 그 시냇가에서 잠든 사이 악마는 왕비와 아들을 죽이라는 내용으로 편지를 바꿔 놓았다. 모후는 여러번 임금에게 편지를 보냈으나 번번이 같은 내용으로 돌아오고 왕비의 눈과 혀를 뽑으라는 답신을 받아 할 수 없이 암사슴을 죽여 혀와 눈을 빼고 어린아이를 등에 업혀 왕비를 궁 밖으로 내 보내게 되

었다. 모자는 천사의 도움으로 어느 조그만 집으로 안내되어 7년 동안이나 보살핌을 받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두터운 믿음과 그 은총으로 왕비의 잘린 손이 다시 돌아왔다. 전쟁에서 귀한 한 임금은 사실을 알게 되고 왕비를 찾아 7년간 탐색에 나선 끝에 어느 숲 속에서 천사의 인도로 임금은 왕비와 아들을 만나 왕비와 왕자를 데리고 왕궁으로 귀환하여 행복하게 잘 살았다.”

독일 민담인 <손 없는 아가씨>는 ‘집이 가난해짐→아버지가 악마와 계약함→주인공이 손이 잘린 채 집을 떠나게 됨→배나무로 인하여 임금과 만나 결혼하게 됨→임금인 남편이 전쟁터로 떠남→아들을 낳음→악마에 의해 편지가 바뀌어짐→궁에서 쫓겨남→양손이 재생됨→임금이 부인을 찾아 나섬→임금과 재회하고 귀환함’.⁶⁸⁾의 서사단락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의 <손 없는 색시>와 독일 민담 <손 없는 처녀>는 구성상의 차이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많은 내용상의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의 <손 없는 색시>는 어머니의 부재라는 결핍이 계모를 등장시키는 원인이 되고 계모에 의해 주인공이 손이 잘린 채 쫓겨나지만, 독일민담 <손 없는 처녀>에서는 가난이라는 결핍이 악마의 등장을 가져오고 아버지가 악마와 계약함으로써 주인공은 손이 잘린 채 집을 떠나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야기의 서두 부분에서 주인공이 시련을 겪게 되는 이유가 한국민담의 경우 친모의 부재로 영입된 계모에 의해서 발생되나 독일민담의 경우는 가난으로 인해 악마와 계약하게 됨으로써 발생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악마는 서양에서는 많이 등장하는 화소이지만 한국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화소이다. 그러나 주인공의 시련이 모두 악한 존재에 의해 발생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다. 한국의 계모는 서

68) 주종연, ‘韓國의 傳來民譚과 독일 Grimm童話와의 比較研究 I; “손 없는 색시”(Das Mädchen ohne hände)’, 앞의 글, p.37.

양의 악마와 같은 악인의 상징으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민담의 경우 아버지는 계모의 낙태 모함에 속아 딸이 부정하다하여 가문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딸의 손을 자르고 내쫓는 것으로 직접적인 원인은 계모에게 있으나 아버지의 처벌에 의해 시련에 놓이게 된다. 반면에 독일민담의 아버지는 딸이 시련을 겪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악마의 위협이 무서워 딸의 손을 자른 것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주인공의 손이 잘리게 되는 원인은 전혀 다르다. 더욱이 쥐의 낙태 조작에 의하여 손이 잘리게 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 고유의 화소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집에서 쫓겨난 주인공이 한국의 민담에서 부잣집 딸의 배나무가 매개가 되어 도령과 혼인을 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독일민담에서도 왕궁의 배나무가 매개가 되어 임금과 혼인을 하게 된다. 그런데 배나무가 매개가 되어 높은 신분의 남자를 만나 혼인하게 되는 구성은 똑같으나 한국에서는 배를 따먹으려는 것이 손이 없기 때문에 한 입 물고 떨어뜨리거나, 올라가기는 했으나 먹지를 못하거나, 또는 아예 올라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독일에서 왕궁으로 들어가는 데서부터 천사의 도움을 받아 도달하고 배를 먹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혼인 후 한국민담에서 남편이 과거보러 집을 떠난 사이 아들을 낳아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나 계모에 의해 조작되어 시가에서 쫓겨난 것처럼 독일민담에서도 왕이 전쟁터로 떠난 사이 아들을 낳아 모후가 아들인 임금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나 악마에 의해 편지가 바뀌어져 왕궁에서 쫓겨나게 된다. 남편이 과거보러 떠난다는 것과 전쟁터로 떠난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중요한 일로 집을 비우게 되는 남편의 부재를 나타내는 것이며, 주인공은 남편의 부재로 또 한번의 시련을 겪게 되는데 이 시련은 처음에 시련을 겪게 만든 계모와 악마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처럼 계모와 악마는 주인공이 겪는

시련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재차 쫓겨난 주인공은 양손이 재생되고 남편의 탐색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귀환하게 된다. 이때 한국 민담에서는 주인공이 우물에서 물을 마시려다가 물 속에 아이가 빠져 아이를 건지려는 순간 재생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강한 모성과 물의 생생력에 의해서 재생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독일의 민담에서는 두텁고 경건한 신앙심에 대한 보상 행위로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이루어진다. 손을 잘리게 된 원인이 달랐던 것처럼 손이 재생되는 계기 또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한국민담의 경우 손의 재생 후 베를 짜거나 품을 팔아 삶을 꾸려가나 독일민담에서는 천사의 보호를 받는다. 이처럼 한국민담은 현실적이나 독일민담은 비현실적인 요소가 많다. 악인의 응징에 있어 한국의 민담은 악인인 계모에 대한 처벌이 나타나나 독일민담에서는 악마에 대한 처벌은 나타나지 않는다.

지금까지 한국민담과 독일민담의 비교를 통하여 동서양 설화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양국의 설화는 이야기의 형태와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모티프들은 너무나 흡사하다. 그러나 한국민담은 내용 구성이 현실적이며 사실성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독일민담은 초현실적인 종교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것은 양국이 다른 문화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민담인 <손 없는 색시>는 우리 고유의 전통적인 '계모설화'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설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V. <손 없는 색시>譚의 文學史的 位相

<손 없는 색시>는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 결핍을 안게 된 한 가정이 그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 계모를 영입하나, 결핍을 해소하기 위하여 들어온 계모에 의해 전처딸은 손이 잘린 채 축출되는 새로운 결핍이 발생한다. 계모로 인해 발생한 결핍은 혼인으로 해소된 듯하였으나 또 다시 계모에 의해 시댁에서 쫓겨나는 결핍이 발생하고 이 결핍은 손의 재생으로 해소되면서 남편과의 재결합으로 복귀하여 계모를 웅징함으로써 완전히 해소된다’는 서사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서사단락들은 주인공의 생애 있어 전환점이 되는 사건들이다. 결국 <손 없는 색시>는 격리-시련-재편입의 통과의례를 손의 잘림과 재생으로 상징화하여 나타낸 설화라고 할 수 있으며 전처딸이 겪는 시련은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치러야 할 관문 즉, 시험으로써의 기능인 것이다. 다시 말해 <손 없는 색시>는 단순히 계모와 전처딸의 선악의 대립구조를 보여주는 설화가 아니라, 여인이 여인으로서의 자기의 세계를 성취하는 과정의 실상을 이니시에이션 과정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완벽한 통과제의적 양식을 띤 설화인 것이다.

이러한 <손 없는 색시>를 계모와 전처딸의 갈등을 다루는 ‘계모설화’ 안에서 논의한 결과 계모와 전처딸의 갈등을 보여주는 설화들은 <손 없는 색시>와 마찬가지로 성년식을 보여주는 통과제의의 절차를 그 구조적 기저로 삼고 있으며 삶의 새 고비, 삶의 새 관문, 인생의 새 문턱에서 치르는 제의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런데 <손 없는 색시>는 다른 유형에서 보이지 않는 ‘손 절단’과 ‘손 재생’의 모티프가 서사 주축이 되어 전체 텍스트를 이루고 있으며, 시댁에서의 2차 축출과 남편의 탐색에 의한 복귀도 이 설화에서만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손 없는 색시>는 ‘계모설화’ 안에서 독특한 하나의 유형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을 것이다.

<손 없는 색시>는 세계적인 분포되어 있는 세계광포설화이다. 그런데 1965년 김성도에 의해 독일민담 “손 없는 처녀”가 우리나라에 번역·소개되었다. 한국민담 <손 없는 색시>는 독일민담 “손 없는 색시”와 흡사한 이야기의 구조를 보이고 있지만 정신적 가치관, 윤리의식, 종교적 전통과 세부적인 내용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며 더욱이 시기적으로 한국민담이 그보다 41년이나 앞서 채취되었다는 점에서 한국민담이 독일민담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손 없는 색시>는 한국 고유의 전통적인 “계모설화”의 하나의 유형으로 보는 것이 더 좋을 듯 싶다.

VI. 結論

본고는 <손 없는 색시>의 작품의 특성과 문학사적 의의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먼저 서론에서는 기존의 연구성과를 검토하고 연구목적·방법을 정리하였다. <손 없는 색시>는 조희웅·주종연·신연우에 의하여 작품론적 연구 및 비교문학적 고찰이 시도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구조주의적 방법, 문학사회학적 방법, 신화학적 방법을 혼용하여 총체적인 의미를 해명하고자 하였다.

II장에서는 <손 없는 색시>의 '계모설화' 안에서의 위치를 밝히고, 국내에서 채록된 다섯 편을 중심으로 가장 핵심적인 순차적 서사 구조를 8가지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 서사구조를 중심으로 단락별 변이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III장에서는 <손 없는 색시>의 사건 전개 방향을 통과제의담으로서의 구조적 측면에서 살피고, 그 속에 구현된 의미체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가족간의 갈등 양상을 사회사적 의미로 접근하여 살펴보았다. <손 없는 색시>는 A. 친모의 죽음, B. 계모의 영입, C. 斷手와 축출, D. 혼인, E. 재축출, F. 손의 재생, G. 재결합, H. 계모 징벌과 복귀로 이루어져 있다. 이처럼 <손 없는 색시>의 구조는 결핍이 행복으로 전환되는, 즉 전체적으로 고난(결핍)과 행운(해소)이 반복적으로 순차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은 주인공에게 있어 생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들이다. 주인공이 겪은 고난(결핍)-행운(해소)의 반복적 순환은 통과의례적 과정에서 주인공이 겪게 되는 시련과 극복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손 없는 색시>는 손을 잘림·축출→과실나무→혼인으로 구성된 전반부와 이별→우물→손의재생·복귀라는 후반부로 나눌 수 있으며, 이것은 다시 격리→시련→재편입(분리→전환→통합)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손이 잘라진다-손 없이 지낸다-손이 다시 불

었다는 일련의 과정은 <분리-전이-통합>의 통과의례였으며 손의 절단은 기존 사회로부터의 분리 즉, 미성년으로서의 삶과의 분리를 의미하며, 손의 재생은 '새로운 사회로의 통합' 즉, 성인으로서의 삶과의 통합을 의미한다. 그리고 축출 후에서 손의 재생 전까지의 삶이 주인공에게 있어서는 의식의 변화, 정신적인 성숙을 가져오기 때문에 전이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아버지가 가진 권위는 절대적인 것으로 전처딸의 손을 자르고 내쫓는 나약한 아버지의 모습이라기 보다는 가족처벌권을 행사하는 단호한 아버지의 모습이었으며, 이렇게 가해를 가한 아버지지만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무능한 아버지라 하더라도 가부장제 하에서 아버지는 결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한 가부장의 절대적 권위 의식이 반영이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순된 아버지 像은 손이 없는 처녀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미친한 행색을 하면서까지 쫓겨난 아내를 찾아 나선 남편을 통하여 부정되며 전승자는 남편을 통하여 바람직한 남자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계모의 악행은 단순한 미움이나 시기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외부인으로 취급하는 사회적인 소외감, 존재의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러한 소외감과 위기감은 남성중심의 불합리한 사회적 제도에서 기인된 것이다. 계모가 전처딸을 斷手한 후 내쫓는 것은 혼인시에 상속되는 재산 또는 혼인비용으로 인한 가정 경제의 위기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모함과 축출이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댁에서의 행복을 방해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모략을 감추기 위해 모함하여 시댁에서의 축출을 당하게 만든다. 그런데 이러한 계모의 악행은 오히려 전처딸에게 행운으로 작용하여 총각을 만나 혼인하게 되고, 잃어버린 손을 찾게 되어 자신을 인식하고 온전한 성인으로 발전하게 된다. 결국 후처라는 위치에 서 있던 여성은 자신의 생존논리에 의해 삶을 꺾하려 했던 것이나 사회는 후처를 악녀의 모습으로 만들고 응징을 가한 것이

다. 반면에 전처딸은 2번에 걸친 고행으로 자신의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찾게 된 것이다.

IV장에서는 계모와 전처딸의 갈등을 다루는 '계모설화' 안에서의 논의를 통하여 <손 없는 색시>의 의의를 밝히고, 독일민담 "손 없는 처녀"의 비교를 통하여 한국민담 <손 없는 색시>의 세계성과 특수성을 살폈다.

'계모설화'에서 전처딸이 겪는 시련과 시련극복의 과정은 몇 가지 유형으로 추려진다. 시련과 극복 즉, 분리와 통합의 결과에 따라 서사단락의 차별성이 나타나는데, 먼저 분리에 있어서 하나는 축출된 인물이 죽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집에서 추방되는 것이다. 분리가 죽음으로 이루어진 이야기는 원귀출현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환생되어 행복을 누리게 된다. 분리가 축출로 끝나는 경우는 주인공이 집에서 축출된 후 죽음의 직전에서 구원을 받고 혼담이 있었던 남자의 집에서의 은둔생활을 거쳐 혼인 후 남편 또는 아버지를 통해 계모를 처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손 없는 색시>의 경우는 단순히 추방만 되는 것이 아니라 손이 잘린 후 추방되며, 혼인 후 시댁에서의 2차 축출이 나타나며, 손의 재생 후 비로소 모든 시련이 극복되고 본래의 집단으로 복귀된다는 점에서 다른 '계모설화'와 차별된다.

1965년 김성도에 의해 독일민담 "손 없는 처녀"가 우리나라에 번역·소개되었지만, 한국민담 <손 없는 색시>는 1924년 처음 채취되었으며 그후 37년에서 38년에 걸쳐 3편이 더 채취된 사실로 보아 두 설화는 영향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두 설화의 이야기의 구성은 상당히 흡사하나, 악역, 손의 절단과 재생의 원인, 악인의 징벌 등 큰 차이점이 발견되며, 세부적인 부분에서도 내용상의 차이가 드러난다. 그리고 독일민담은 두터운 신앙심으로 인한 정신적 고결과 청결함에 의한 육체적 순결의 궁극적 보상의 강조가 이야기의 전편에 깔린 주제라면, 한국민담은 계모의 학대와 고난극복을 주제로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손 없는 색시>는 우리 고유의 전통성을 지

난 독자적인 민담이라고 할 수 있겠다.

V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하여 <손 없는 색시>의 문학사적 위상을 규명하였다. 결국 <손 없는 색시>는 즉 추방과 복귀, 이별과 재결합, 결핍과 충족 등이 반전되는 구조의 변주이며 여성의 정체성의 확립, 父母로부터의 온전한 분리와 부부로서의 온전한 통합에의 지향성을 보여주는 入社式의 통과제의를 보여주는 설화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계모설화'와는 다른 독특한 모티프를 지니고 있으며, 독일민담 "손 없는 처녀"와 영향관계를 가지지 않은 독자적인 우리 고유의 민담이라고 할 수 있겠다.

<손 없는 색시>는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세계광포설화의 하나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5편 정도 밖에 조사·발굴되지 못했다. <손 없는 색시>는 독특한 모티프와 풍부한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호응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앞서도 지적했듯이 손을 자른 채 내쫓는다는 것은 한국인의 정서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수용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한다. 잘린 손에서 피 한방울 나지 않는다는 표현과 亡母의 도움으로 하늘로 날아갔다는 표현에서 斷手 사건은 잔인하기 이를 데 없으며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식하는 전승자들이 의식을 볼 수 있다. 전처딸을 내쫓기 위한 계모의 낙태모함은 많은 자료에 등장한다 이때 한결같이 죽음으로 내몰려지며 <황대감의 딸>처럼 다행히 목숨을 건지거나 <장화홍련>처럼 자신이 스스로 투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지가 절단되는 것은 극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장화는 비록 죽음에 이르렀지만 신체를 온전히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그 잔학성이 덜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5편 밖에 채록되지 않은 <손 없는 색시>가 일본에서는 37편이나 되는 많은 자료가 현재 채록되어 있으며, 한국자료와 이야기 구조가 상당히 일치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두 나라는 지리적으로 연접해 있기 때문에 영향을 어느 정도는 주고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향을 주고

받았다고 해서 한국민담이 독자적인 자생민담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또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전파되어 전승된 것인지, 아니면 각기 독자적으로 자생된 것인지는 앞으로 밝혀져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앞으로의 연구에서 밝혀질 것을 기대해 본다.

參 考 文 獻

I. 자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1980~1987.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1-11』, 평민사, 1988.

Bruder Grimm편, 김창환역, 『세계문학전집』 v.100(독일민담설화편), 을유문화사, 1960

II. 단행본

김두헌, 『한국 가족제도 연구』, 서울대출판부, 1969.

김열규, 『한국의 신화』, 일조각, 1991.

김진명, 『굴레 속의 한국여성』, 집문당, 1993.

김열규, 『한국의 신화』, 일조각, 1976.

이관규, 『한국가족의 사적 연구』, 일지사, 1977.

이부영, 『한국민담의 심층연구』, 집문당, 1995.

조희웅, 『설화학 강요』, 새문사, 1993.

„ , ‘손 없는 색시」(AT 706)’, 『한국설화의 유형』, 일조각, 1996.

주종연, 『한독민담비교연구』, 집문당, 1999.

최운식, ‘계모설화의 전승 양상 및 구조와 의미’, 『한국설화연구』, 집문당, 1994.

최재석, ‘조선시대의 가족·친족제’, 『전통사회의 가족과 촌락생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하현강, 『한국여성의 전통상』, 민음사, 1985.

하현강, 『한국여성사 고대-조선시대』,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3.

다이애너 기틴스 지음, 안호용외 역, 『가족은 없다』, 일신사, 1998.

엘리아데, 이은봉역, 『종교형태론』, 한길사, 1998.

시몬느 비에른느 지음, 이재실 역, 『통과제의와 문학』, 문학동네, 1996.

자크브로스 지음, 주향은 역, 『나무와 신화』, 이학사, 2000.

III. 논문

강은미, 지하국대적퇴치설화,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김종균, '콩쥐팍쥐전 연구-이중구조와 상징을 중심으로-', 『우리어문학연구』
(3), 한국외국어대 한국어교육과, 1991.

김재용, '계모형 고소설의 시학적 연구', 서강대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1.

김혜정, '繼母型 家庭小説 研究 : 〈장화홍련전〉과 〈치악산〉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고영덕, '계모형 소설 연구 : 장화홍련전과 콩쥐팍쥐전을 중심으로', 전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박태상, '조선조 가정소설 연구:계모형·쟁충형 소설을 중심으로', 연세대 박사
학위 논문, 1989.

박덕순, '계모형 소설의 가족 갈등 연구 : 장화홍련전, 정을선전, 어룡전을 중
심으로', 부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신규원, '계모형 소설연구-계모의 성격과 그 갈등양상을 중심으로', 영남대 석
사학위 논문, 1982.

신상운, '계모 설화 연구', 전북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0.

오출세, '한국서사문학에 나타난 통과례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 논문, 1990.

우쾌재, '계모형 소설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 논문, 1976.

유시순, '계모형 소설에 나타난 갈등의 전개양상에 관한 연구', 계명대 교육대
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5.

이원수, '계모형 소설의 형성과 변모', 『국어교육연구 17집』, 경북대국어교육과, 1985,12.

〃, '<콩쥐팍쥐>연구의 경과와 전망', 『어문학 제 61집』, 한국어문학회, 1997.8.

〃, '콩쥐팍쥐 설화 연구', 『문학과 언어 19집』, 문학과 언어학회, 1997.

이인경, '개가열녀담'에 나타난 烈과 貞節의 문제, 『구비문학연구 6집』, 한국구비문학회, 1998.

전용신, '한국계모설화연구', 경성대 석사학위논문, 1998.

조성숙, '계모형 고소설 연구', 계명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3.

조현설, '남성지배와 「장화홍련전」의 여성형상', 『조선후기 서사문학사의 시각(2)』, 민족문학사연구소, 1999.11

조희웅, '성 숭배와 성 상징(二)', 『국민대어문학논 4』, 1985.

〃, '툼손의 설화 연구 및 「설화학」론;서평을 겸하여', 『국민대어문학논 4』, 1994.

주종연, '한국의 전래 민담과 독일 그림동화와의 비교연구I; "손 없는 색시"(Das Madchen ohne Hande), 『국민대어문학논총 11』, 1992. pp.19-39.

주종연, '한국의 전래 민담과 독일 그림동화와의 비교연구II;<콩쥐팍쥐>와 <Aschenputtel>', 『국민대어문학논총 12』, 1993. pp.17-40.

최경숙, '계모형 가정소설 연구', 동아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3.

< 1차자료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1980 ~ 1987.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1권』(평안북도편), 평민사, 1988.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8권』(전라북도편), 평민사, 1991.

ABSTRACT

A Study on the Folktale of Bride without Hands

Kang Eun-Kyung

Major in Korean Literature

Dep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Hansung University

This study is purposed to examine the feature and significance in the history of literature of the work, The Bride without Hands

In the first part, I go over some established studies and mentioned the object of the study.

During the second part, I define the position of the work, The Bride without Hands, in step-mother tale and narrowed orderly epic-structure into eight segments, focusing five recorded works in Korea. Furthermore, I indicate segmental mutative aspect.

In the third part, I observe the development of the case in the story and examine the meaning structure in The Bride without Hands. I also show the discord on social movement.

In the next part, I reveal the significance of The Bride without Hands by analyzing stepmother tales, which handle the matter of discord between a stepmother and a daughter from a former wife, and also observe international position and peculiarity.

In the last part, based on the study, I define the value of *The Bride without Hands* in the history of literature.

To sum up, *The Bride without Hands* is the structure of expulsion; return, separation; reunion, and lack; adequacy itself, show social custom in entering, and contain the independence from parents and complete combination of a couple. However, it has differentiation that it contains very special motive which is cutting and regeneration of hands, throwing out from the husbands home in second time, and the husbands inspecting of his wife, which can not be found from the other step-mother tales. In addition, *The Bride without Hands* was translated by Kim, Sung-Do in 1924, but it has never been proved those two were related because the Korean tale, the *Bride without Hands*, was initially recorded in 1924, and three more related works were found between 1937 and 1938. The structure of those two are strikingly similar, but several distinctions, which is the role of a villain, the cause of cutting and regeneration of hands punishment of the villain were found, and the detailed distinctions can be seen in the story. Indeed, *The Bride without Hands* is Korean original tale, which contains Korean tradition.